

망향의 섬

작품의도

어느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자기의 자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회귀본능이라고 말한다. 여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래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서로 다른 형태의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서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연과 운명의 굴레를 그리고 싶었다.

주요 등장인물

이기우 (35세, 남)	제주목사, 소북파의 일원으로 대북파의 계략으로 인해 제주로 부임한다.
김성규 (50세, 남)	유배인, 소북파의 실세였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투쟁의 분파과정에서 제주로 유배된다.
숙화 (16세, 여)	섬 처녀, 김성규의 시종을 든다.
만갑 (36세, 남)	숙화의 아버지, 의식 없는 부인과 어린 딸을 돌본다.
고범수 (35세, 남)	정의현 좌수, 제주 토박이로 정의현의 폐당작업을 진행한다.
심방 (24세, 여)	정의현 자귀당 무당, 사당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덕구 (34세, 남)	심방의 심복, 심방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왕세자 (18세, 남)	유구의 왕족, 왜에게 잡혀간 아버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밀선을 띄운다.
두현 (20세, 남)	제주 출신의 청년, 유구로 흘러 들어와 막일을 하다가 우연히 밀선을 타게 된다.
쇠득 (20세, 남)	두현의 친구.

줄거리

이야기 하나,

17세기 초, 선조가 급사하면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영창대군을 세자로 추대하려던 소북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북파의 일원이었던 이기우는 권력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제주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험한 바다 건너에 위치한 제주는 모두가 기피하는 미개의 땅이다. 이기우는 부임하자마자 한양으로 진상하는 공물의 준비를 책임지게 되고, 제주에 유배와 있는 자신의 스승 김성규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러 갔다가 김성규의 시종을 드는 섬 처녀 숙화에게 반한다. 공물 진상을 완벽히 준비하여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공물의 수량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이기우는 김성규에게 의지하며 해결책을 모색해보려고 하지만, 김성규는 예전의 강직했던 모습을 잃고 숙화를 농락하기

바쁜 늑은이로 변해버렸다. 진상일은 어느 덧 코앞으로 다가오고, 계획된 공물의 수량을 채우지 못한 이기우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른다. 하지만 그 때, 자귀당의 무당인 심방이 묘안을 들고 그를 찾아오는데 ……

이야기 둘,

제주 정의현의 좌수인 고범수는 제주 토박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폐당 작업에 열을 올린다. 미개하고 천박한 땅이라는 팔시의 원혼이 귀신을 숭배하는 사당이라고 생각하는 고범수는 정의현에 완벽한 유교화를 이룩하면, 제주 사람인 자신 역시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귀당의 폐당을 남겨둔 시점에서 심방은 사당을 사수하기 위해 고범수에게 협박을 가해 오고, 동시에 마을에는 왜가 침입해 온다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마장의 말이 급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모든 것이 심방의 계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범수는 심방에게 당장 섬을 떠날 것을 명하지만, 심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심복인 덕구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일을 꾸민다. 이에 고범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심방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

이야기 셋,

외딴 섬 유구로 흘러들어와 짐을 나르며 생을 이어나가는 두현은 주막에서 우연히 만난 사내들에게 밀선 하나가 자신의 고향인 제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동무 쇠득과 함께 출항을 앞둔 밀선의 창고 안으로 잠입한다. 하지만 그들은 곧, 창고 한 가득 쌓인 상자 안에 보물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땐 이미 배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다. 이에 흥분한 쇠득은 창고 밖으로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두현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창고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두현은 멍석 아래 몸을 숨겨서 상황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탈출을 감행하는데, 창고 밖에는 온통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을 뿐이다. 충격에 휩싸인 두현은 정신없이 배 안을 살피다가 선실에 묶여 있는 왕세자를 발견하는데 ……

#001. 프롤로그 / 숲, 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한밤중의 숲. 무성하게 우거진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한 소녀가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숲 속을 내달린다. 누군가에 쫓기기는 듯 급한 숨을 내쉬며 도망친다.

달빛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소녀의 얼굴이 슬쩍 비춰진다.

터질 것 같은 숨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초점을 잃은 생기 없는 눈동자. 얼굴에 뿜 땀물이 땀과 섞여 뺨 아래로 흘러내린다. 험고 너털너털한 흰색 속저고리가 피로 물들어 있다.

그 때, 소녀를 뒤쫓는 남자가 보인다. 남자의 시점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소녀의 뒤를 쫓는 카메라. 남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걸음이다.

억지로 무거운 발을 끌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남자.

이내 시야에서 소녀가 사라진다. 한참 동안의 정적.

고통스러운 표정의 남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더니, 절룩거리며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한 발의 총성. 일그러져 있던 남자의 표정이 총성에 놀라 멍하다.

화면 점차 어두워지면서 타이틀 “망향의 섬”이 뜬다. 타이틀이 사라지고 자막이 이어진다.

(자막) 1606년, 당시 실권자인 소북파 유영경은 적통론에 입각해 영창 대군을 세자로 추대하려 했지만, 선조가 급사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소북파는 몰락하고 정인홍 중심의 대북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 소북파의 실세(實勢)였던 현암 김성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 유배된다.

#002. 우의정의 집 안방, 낮

Ins. 청색 기와가 반짝이는 거대한 집 전경. 그 위로 떠오르는 자막 “한양, 1609년”

붉은빛을 띠는 자개장과 자개함으로 둘러싸인 컴컴한 방.

입을 굳게 다물고 애써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는 우의정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숨도 쉬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미동도 않는 이기우.

우의정이 손에 쥐고 있는 곰방대에서 피어나는 자욱한 연기 때문에 방 안이 뿌옇다.

이기우 (고개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르신, 왜 하필 접니까?

우의정 미안하네. 내 자넨 볼 면목이 없어. 하지만 나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네.

이기우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의정, 말을 잊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곰방대만 만지작거린다.

이기우 가혹한 처사입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옵소서.

우의정 (버럭 화를 내어 상을 내리치며) 어찌 명을 여기란 말인가. 이미 다 결정난 일일세.

이기우 하지만…….

우의정 자네를 신뢰하기 때문이네. …게다가 지금 그 곳엔 현암 어른이 계시지 않은가. 자네가 현암 어른의 안위를 살펴야하네.

이기우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우의정 열 사람에게 한 상씩 대접한다면 점잖게 잘 먹고 일어날 것이야. 하지만 밥그릇이 하나인 걸 어찌하나.

팬스레 헛기침을 해대는 우의정과 그런 우의정의 태도와 자신의 처지가 절망스러운지 크게 한숨을 쉬는 이기우.

우의정이 뭔가가 생각났는지 등 뒤의 자개장을 열어 윤이 나는 자개함을 꺼낸다.

기다란 자개함이 쿵, 하는 마찰음을 내며 탁자 위에 올려진다. 자개함을 돌려 이기우가 앉은 쪽으로 열어 보이는 우의정.

허리가 긴 조총이 누워있다.

우의정 왜에서 들여온 행용총이네. 내 자네에게 따로 해줄 것은 없고, 이것이라도 전해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험한 땅인 만큼 몸조심해야할 것일세.

매끈한 조총을 내려다보는 이기우.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눈동자가 화면을 채운다.

#003. 이기우의 집 앞, 아침

마당에서 솟을삼문을 지나 외삼문으로 걸어 나오는 이기우.

가족들과 시종들이 그 뒤를 따른다. 다들 소리 내어 울고 있다.

외삼문 앞에 세워져 있는 가마를 보자 통곡을 하며 주저앉는 부인.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는 듯 이를 꽉 물고 흐느끼는 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이기우.

큰아들 아버님,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 때의 박인환은 제주목사를 제수 받았으나 부인의 병환으로 부임하지 않았고, 정인인은 병을 청탁하여 부임하지 않았습시다.

이기우 (애써 개의치 않으며) 네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큰 아들 옆에 서 있는 작은 아들은 아직 어린 탓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얼은 표정으로 서 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이기우.

이기우가 등을 보이며 가마를 향해 걸어가자 더 커지는 울음소리.

이기우가 차분히 가마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가마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가마.

멀어지는 가마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004. 초가 마당, 낮

돌담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위로 떠오르는 자막 "제주, 1609년"
마치 불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들 호기심이 들끓는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한다. 시간이 멈춘 듯 잔뜩 긴장한 사람들의 표정. 일체의 웅성거림도 없이 조용하다.
대여섯 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출장난을 하다가 청얼대며 엄마에게 달려가면, 정적이 깨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렸다가 다시 돌아간다. 아이의 엄마 역시 구경을 하는 사람들 안에 섞여 있다.
아이엄마의 반대편에 서서 조용히 하라는 손짓으로 주의를 주는 덕구, 비쩍 마르고 왜소한 체격으로 사람들 틈에 묻혀 겨우 자리를 잡고 있다.
다시 정적이 흐르면,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마주 보고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인다.
흰 종이 고깔을 쓰고 안이 비칠 만큼 얇고 하얀 소복 차림을 하고 있는 심방. 심방의 검은 두 눈동자가 마주보고 앉은 남자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노려본다.
틀어 올린 상투가 엉망으로 풀어헤쳐져 있는 남자. 이내 심방의 시선을 피하고 산만하게 움직이려 하면, 손과 발이 줄에 묶여있어 꼼짝 할 수가 없다.
앞에 놓여있는 소반상 위의 놋그릇으로 조심스레 손을 가져가는 심방. 놋그릇 안에 담겨 있는 쌀을 한 움큼 쥐어 들고 남자의 몸을 향해 여러 번 흠뻑린다.
갑작스레 수군거리며 동요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며 묶인 몸을 뒤흔던 남자가 피를 토해낸다. 헉헉 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 내쉬는 남자.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한번 스윽 닦아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심방. 놀라움에 넋이 나가있는 사람들. 사람들 틈에 묻혀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 덕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더니 먼저 나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그러자 일제히 터지는 사람들의 환호성.

#005. 초가 뒤, 낮

#004에서 피를 토했던 남자가 홀로 초가 벽에 기대어 서 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물이 든 저고리는 그대로이지만, 굳게 다문 입과 총기 있는 눈빛이 마치 다른 사람 같다.
이리저리 주위를 부산하게 살피며, 초가 뒤로 슬금슬금 걸어 들어오는 덕구.

덕구 (자신의 저고리 안주머니를 뒤적이며) 수고했어.
남자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엽전 꾸러미를 능청스럽게 받아 챙기는 남자.

덕구 (단호하게) 약속 잊지 말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심방님보다도 내가 먼저 자네 모가지를 칠 테니 명심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엽전을 하나씩 세고 있는 남자.

덕구 얼른 섬을 떠나게.

#006. 심방의 방, 낮

가지각색의 부적이 벽에 가득하고,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이목구비를 가진 신의 모습이 담겨진 그림이 여러 개 걸려있다.

상 위에는 크고 작은 삼지창들과 장군칼, 칠성검, 대신칼이 차례대로 놓여있다. 요란한 장식이 돼있는 단도 몇 자루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차분히 앉아 명두를 닦고 있는 심방. 그 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덕구 (속삭이듯) 심방님, 덕구입니다.

심방 (명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한 켠에 치워 두며) 들어오너라.

빠꼼히 문을 열고 주위를 슬그머니 살피더니 방 안으로 들어오는 덕구.

덕구 입막음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단단히 일렀습니다.

심방 그래, 수고했다.

덕구 (말하기를 머뭇거리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소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지 멀쩡한 놈을 데려다가 병신 행세를 시키신 건지….

심방 시끄럽다.

덕구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치병굿까지 하시고….

심방 내 분명 시끄럽다 일렀다.

덕구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조아리면, 상 밑에서 보자기에 싸인 상자 하나를 꺼내는 심방.

심방 (덕구에게 상자를 밀어주며) 이걸 고범수에게 전하거라. 진귀한 물건이니 조심하여야한다.

#007. 유구(琉球)의 포구, 낮

Ins. 안개가 자욱한 포구마을 전경. 그 위로 떠오르는 자막 “유구, 1609년”

포구에 정박해 있는 커다란 관선.

짐꾼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배 안으로 물건을 나른다. 혼자 들기에는 벅찬 크기의 나무 상자들이 포구에 즐비하게 쌓여있다.

배와 포구를 연결해놓은 통나무 받침대가 위태로워 보이지만, 짐꾼들은 묘기를 부리듯 절묘하게 움직이는 짐꾼들.

그들을 따라 이마의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도 여의치 않고 묵묵히 짐을 나르는

청년, 두현이다. 피곤에 절어 까맣게 그을린 얼굴이지만, 앓된 모습이다.

두현 이놈아, 좀 똑바로 들어봐.

두현과 함께 짐을 들고 있는 쇠득이 두현의 말에 홀, 하고 콧방귀를 킂다. 두현과는 대조적으로 잔뜩 인상을 구긴 채, 혀를 쪽 내밀고 있는 쇠득.

#008. 포구 근처 주막, 낮

앞치마를 두른 아낙 서넛이 주방과 마당을 바쁘게 오간다.
놀이터마냥 아이들 몇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평상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두현과 쇠득. 주위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두현은 밥상에만 머리를 박고 국밥을 부지런히 뜯다. 그런 두현을 아니꼽게 쳐다보는 쇠득이 입안의 국밥을 못마땅한 듯 질경질경 씹으며

쇠득 밥이 넘어가냐?

두현, 쇠득이 보란 듯이 그릇을 들어 올려 게걸스럽게 먹는다.

쇠득 (가슴팍을 두어 번 내려치며) 으이구!
두현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쇠득 ...언제 까지 여기서 이럴래?
두현 이러지 않으면 그럼?
쇠득 널 따라온 내가 등신이지.
두현 난 너 꼬드긴 적 없다. 그건 분명히 해둬야 해.
쇠득 (버럭) 이놈아, 그래서 내가 등신이라잖아.

쇠득의 소리에 놀란 두현이 귀를 막는 시늉을 한다.

두현 시끄러워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책임지고 다시 집에 데려다줄 테니, 그 입 다물어라. (종알거리듯) 사내자식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걸 진득하지 못하고 ...

그 때, 두현과 쇠득이 앉아 있는 옆으로 상이 하나 올라오고, 평상으로 사내 셋이 올라앉는다. 두현과 쇠득이처럼 포구에서 상자를 나르던 짐꾼들이다.
그들이 자리에 앉는 동시에 아낙이 술을 내어온다. 짐꾼들의 대화는 유구어로 이루어지고, 자막으로 처리된다.

짐꾼1 아니, 저 많은 걸 대체 어떻게 싣고 간대냐? 저러다간 바다 한 가운데서 폭삭 가라앉게 생겼구만.

동시에 말소리가 나는 쪽을 힐끗 쳐다보는 두현과 쇠득.

짐꾼2 설마 저렇게 튼실한 배가 가라앉기야 하겠나. 그나저나 왜 캄캄한 한밤중에 출발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자시경이라고 하던데.

짐꾼1 그거야 나랏일 하는 놈들 맘이지. 첫닭이 울 때 떠나든, 자네가 마누라 치마 폭에 서 쿵쿵거리고 있을 때 떠나든, 자네가 무슨 걱정인가.

한바탕 낄낄대며 웃는 짐꾼들.

짐꾼1 그나저나 행선지가 어디라나?

짐꾼2 글썄, 제주라는 것 같던데…….

짐꾼들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수저를 내려놓는 두현. 반면에 '제주'라는 짐꾼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쇠득.

쇠득 들었어?

두현 무얼?

쇠득 저 사람이 방금 한 소리 들었냐고.

두현 (시큰둥하게) 넌 이제 저 놈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냐? 거 참 신통방통하네. 나는 도통 뭐라고 씨부리는 건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던데.

쇠득 제주라잖아, 제주.

쇠득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현.

한참동안 서로를 아무 말 없이 응시하는 두 사람.

#009. 밀선, 밤

관군 서넛이 줄을 잡아당기자 뚝대 위로 노란색 깃발이 올라간다. 출항을 앞두고 포구와 밀선 사이를 오가며 바빠 준비하는 짐꾼들.

고개를 꼭 숙인 채, 급한 걸음으로 짐꾼들에 섞여 배에 오르는 두현과 쇠득. 환한 햇불 때문에 얼굴이 보일까 싶어 움츠리는 두현. 두현을 따라가는 쇠득 역시 주위의 눈치를 보며 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각자 맡은 일을 점검하느라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010. 관선, 낮

바다 한 가운데 다소 요란한 게 떠가는 경쾌선.

이기우가 갑판에 위태롭게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쓰고 있던 관모가 바닷바람에 들쭉이다가 바다 위로 날아가 버린다.

깜짝 놀라 주춤거리다가 바다 위로 팔을 힘껏 뻗어보는 이기우. 관모는 파도를 타고 서서히 멀어져간다.

그 때, 기다란 나무 막대를 휘휘 저으며 나타나는 뱃사람, 만갑. 만갑이 들고 온 막대로 바다 위에 둥둥 떠가는 관모를 건져낸다.

만갑 (관모의 물기를 털어내며) 나리, 여기 있습니다.
이기우 고맙네.

촉촉히 젖은 관모를 받아드는 이기우.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는 만갑.
멀어지는 만갑의 목덜미 바라보던 이기우가 만갑을 불러 세운다.

이기우 이보게,
만갑 (돌아서며) 예, 나리.
이기우 자네는 이 배를 매일 타는가?
만갑 하늘만 굶지 않으면 매일 건넌죠.
이기우 그렇다면 섬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잘 알고 있겠구만.
만갑 글썄요, 갑작스레 구풍이 이리도 부는 걸 보니, 주자섬으로 들어갈 듯싶습니다.
이기우 주자섬?
만갑 나주에서 출발한 배는 제주로 들어가기 전에 대게 그곳에서 멈춥니다. 오래 정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내일쯤이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을 듯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배.
만갑의 말을 듣던 이기우가 갑작스레 뱃멀미로 토악질을 한다.
손에 쥐고 있던 관모가 바닥에 떨어진다.

만갑 (어쩔 줄을 모르며) 팬찮으십니까, 나리.
이기우

고개를 숙인 채, 만갑에게 그만 가보라고 손짓하는 이기우.

#011. 고범수의 집 후원 정자, 낮

좌수 고범수가 현감, 별감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범수가 그릇에 담긴 말린 왜굴 조각을 집어 들어 향을 맡고는, 찻잔에 담는다.

고범수 (현감의 찻잔에 물을 부으며) 자서보시지요. 왜굴은 크기도 당유자 다음이지만, 맛도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굴이나 산굴에 비해서도 품종이 떨어지지요. 허나 이렇게 햇볕에 바싹 말려 꿀에 절이면 오히려 그것들보다 맛이 좋습니다.

찾잔을 들어 향을 맡는 현감.

현감 자네는 어찌 그렇게 토산물을 꿰고 있는 겐가? 내 항상 신기하네.
별감 나리, 좌수 어른께서 제주사람인 걸 잊으셨습니까? 제주사람이 제주열매에
 대해 박식한 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옵니다.
현감 (애써 웃으며) 그런가?

별감의 말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고범수.
현감이 별감의 눈치없음을 책망하는 듯한 눈짓을 보낸다.

고범수 그나저나 이번에 내려오시는 목사나리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요?
별감 저 역시 궁금하옵니다.
현감 글쎄,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네만, 현암 어른의 가르침을 받으신 분이라고
 들었네.
고범수 현암 어른의 제자라면……
현감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현암 어른께서 유배되어 이곳으로
 오신 걸 고려해보면, 그의 제자라는 사람이 좌천되어 내려오는 것도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지.
별감 새 목사나리께서 현암 어른의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
 는 폐당 작업을 반기시겠습니까. 이거 따로 애쓰지 않아도 잘 보일 수 있
 겠는걸요, 허허.

그 때, 시종 하나가 성큼성큼 정자로 뛰어온다.
그 뒤를 따라 슬금슬금 걸어 들어오는 덕구. 심방이 건네준 보자기에 싸인 상자를 가
슴에 얹고 있다.

시종 어르신, 덕구가 찾아왔습니다.

시종의 알림에 얼굴이 굳는 고범수.
현감과 별감이 동시에 정자 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별감 덕구가 누구요?
고범수 (머뭇거리다가) 자귀당 심방의 뒤통다꺼리를 해 주고 있는 놈입니다.

#012. 만갑의 초가, 저녁

미동도 없이 생을 다한 사람처럼 누워 있는 만갑의 처.
만갑은 처의 힘없이 늘어진 팔을 주무르고 있고, 만갑의 딸인 숙화는 물이 담긴 둥글
넓적한 대야에 수건을 적시고 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심방.

심방 내 밤낮으로 유목신장님께 치성을 올리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기 말게. 곧
 일어날 거야.
만갑 도대체 …… 언제쯤 말입니까?
심방 내 말을 믿지 않는 겐가?
만갑 하지만 이건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심방 (흥분을 가라앉히며) 기다리게. 곧 일어날테니, 두고 보라고. 신이 지켜 주
 실 걸세.

가만히 숨죽이고 앉아 이들의 대화를 듣다가 일어서는 속화.

속화 (방문을 열며) 현암 어르신 저녁상 봐드리고 올게요.

문이 닫히고, 신을 끌고 마당을 걸어가는 속화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만갑 어린년이 두 집 살림 하느라, 고생이지. 이럴 때, 제 오라비라도 곁에 있
 어주면 좋으련만…….
심방 ……그 아인, 여태 아무 성문이 없나?

말없이 크게 한숨을 내뿜는 만갑.

심방 그나저나 자네, 내 그 전날 말한 것을 잊지 않았겠지?

만갑을 바라보는 심방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난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만갑.

심방 (다시 소리를 높여) 속화에게 전하였나?
만갑 ……아직 못하였습니다.
심방 서두르게. 속화도 미리 알고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준비할 것이 많은.
만갑 (망설이다가) 꼭 그 아이여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겐 이제 저
 아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심방 모두를 위해서야. 저 아이의 희생으로 마을 전체가, 아니 이 섬 전체가 평
 안할 것이네.

#013. 밀선 창고, 밤

창고 한 가득, 나무 상자들이 쌓여있다.
상자 뒤의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은 상태로 앉아 있는 두현. 맞은편에는 쇠득이가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웅크리고 있다.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창고 주위를 둘러보는 쇠득.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창고 안을 밝힌다.

두현 왜 그러냐, 표정이? 막상 집에 데려다주겠다니까 맘이 달라져?
 쇠득 근데 말이야. 왜 한 밤 중에 배를 뺀 거지? 이런 관선은 밤에 출발하는 경우가 없잖아.
 두현 집에 갈 수만 있으면 된 거지, 우리가 밤낮 따질 처지냐?
 쇠득 그게 아니라, 이상하잖아. (창고 안을 눈으로 슬쩍 둘러보며) 이렇게 많은 짐을 한 가득 싣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두현 그냥 조용히 구겨져 있어. 며칠만 숨어 있으면 될 거야.
 쇠득 영 찝찝한 게 이상하잖아.꼭 몰래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두현 우리 몰래 도망치고 있는 거 맞거든.

눈앞에 가득 쌓인 상자를 계속 쳐다보던 쇠득, 결국 작은 상자 하나를 만지작거린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스레 주위를 둘러본다.

두현 가만히 있어.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좀 조용히 구겨져 있자고.
 쇠득 답답해서 그래. 좀이 쑤셔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두현 네 목숨은 여러 개냐, 여러 개야? 그러다 들키면 나까지 죽잖아.

두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상자 뚜껑을 슬쩍 열어서 한 손을 집어넣어보는 쇠득. 무언가 잡히는지 이리저리 만져본다.
 그러다 상자 밖으로 손을 꺼내면 진주가 한 움큼 쥐어져 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 하다가 스스로 입을 막는 쇠득.
 쇠득보다 더 식겁했는지 큰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현.
 크게 한 숨을 내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쇠득의 두 손에 가득한 알 굶은 진주가 달빛에 반짝인다.

#014. 돌담길, 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담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심방.
 그 때, 앞에서 누군가가 서둘러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멈춰서 앞을 살피는 심방.
 점점 커지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사내, 심방 앞에 서면

심방 누구냐?
 사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나리께서 찾으십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심방 나리라면?
 사내 좌수 어른이십니다.
 심방 앞장 서거라.

#015. 공간, 밤

사내의 안내를 받아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심방.

목례하는 사내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고범수. 그러자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간 밖으로 나가 망을 본다.

사내가 나가자 곧바로 심방을 쏘아보는 고범수. 심방은 그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하며 맞선다.

고범수 (바닥에 놓아둔 상자를 집어들며) 이런 건 필요 없네. 도로 가져가게.

심방 (상자를 억지로 받아들며)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고범수 ……그런 게 아니야.

심방 명에서 들어온 자기이옵니다.

고범수 (할 말을 잊은 듯 뚫들이다가) 나를 그만 괴롭히게. 나도 이제…지쳤어.

여유했던 심방의 눈빛이 날카롭게 돌변한다. 그 모습에 움찔하는 고범수.

심방 지쳐요? 무엇이 지치셨습니까? 사당들을 모조리 폐쇄하시는 게 지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천신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강요하시는 게 지치셨습니까?

고범수 그 입 다물라.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심방 (애원하는 어조로) 나리, 나리께서는 제주사람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신을 뵈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수작에 놀아나시는 겁니까?

고범수 이미 한양에서는 자네 같은 무인은 노비나 백정 같은 것들과 진배없네. 자네를 이렇게 온전히 두는 게 우연 같은가? 다 옛정이 있기 때문이야. 이방인들의 수작이라고? 굶을 단속하고, 당집을 없애는 게 바로 나랏일이네.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일세.

심방 무속이 곧 이 땅의 뿌리이옵니다.

고범수 현암 어른이 내려오신 후부터 나도 꿈쩍할 수가 없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자리도 위태로운 마당에 내가 무얼 어찌하겠나. 게다가 새로 부임한 목사 눈치 볼 생각 하면 나도 숨 쉴 여유조차 없네.

심방 힘이 돼주시지 않으신다면, 소인 혼자서라도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앓을 겁니다.

고범수 ……

심방 (기가 찬 표정으로 질려있는 고범수를 노려보며) 명심하십시오. 천신이 노하신다면, 나리의 안위도 위태롭다는 걸요.

심방의 경고에 순간, 다리가 휘청하는 고범수.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놓고, 장옷을 다시 걸친 후 그대로 돌아서 공간을 빠져나가는 심방.

사라지는 심방의 뒷모습을 보며 분에 못 이겨 상자를 집어 던지려하는 고범수.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는다.

#016. 바다, 밤 (심방의 꿈)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 허름한 밀선 하나가 떠 있다.
선상의 바닥을 서서히 훑으며 이동하는 카메라. 선상이 진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배의 이 곳 저 곳을 관통한 화살들이 가득히 꽂혀 있고, 시체 몇 구가 진주
무더기 위에 너부러져 있다.

#017. 심방의 방, 밤

꿈에서 황급히 깨어나는 심방의 얼굴. 커다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데, 공포에
질린 모습이다.
거친 숨을 몰아 내쉬며 몸을 일으켜서 앉는다.

#018. 제주목관아 동헌 마루, 아침

지그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이기우의 모습.
마루 옆에 서 있는 이방, 한지에 길게 쓰여 있는 공헌품목을 크게 읽어 내려간다.

이방 백랍 24편. 이는 도계진상이옵니다. 추복 760점, 인복 85몫, 미역 40몫,
 미역귀 2섬 5말. 이는 3월 진상품목과 그 수량입니다.

이방의 말이 멈추자 감고 있던 눈을 뜨는 이기우.

이기우 끝인가?
이방 아니옵니다. 선세로 큰 전복 1600개, 감자 1그루에 열리는 수량을 수송하
 여 봉납하여야 하고, 봉상시에는 표고버섯 16근 6냥, 비자 3섬 7되를, 공
 조에는 바다거북 껍질 4장, 고라니 가죽 2령, 자개장식용 전복껍질 9되를
 진상해야 합니다. 의영고 에는 미역 2035근을, 해민서에는 청피 20근, 향
 부자 10근, 진피 2근 8냥, 엄나무껍질 12냥, 반하 2근, 치자 6냥을 진상
 하여야 합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허리를 비스듬히 숙인 채 서 있는 이방.

이기우 그렇다면 일단 이번 월령은 다 준비된 건가? 아까 뭐라 했었지? 추복 760
 점, 인복 85몫? 내 내륙사람인지라 그게 무언지 도통…….

이방 추복은 두드러가면서 말린 전복을 말하며, 인복은 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
 복으로 건복이라고도 합니다. ……송구스럽게도 월령은 아직 다 갖추지 못
 하였습니다.

이기우 진상품이 언제 한양으로 올라가는가?

이방 이달 말일이옵니다.

이기우 이달 말이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군. 서둘러야겠네.

이방 (목례를 하며) 예.

#019. 현암의 초가 앞, 낮

Ins. 바다가 보이는 울퉁불퉁한 돌길 끝에 외딴 초가의 모습.
허름한 초가 앞에선 이기우. 돌담 밖을 서성이며 초가의 이쪽저쪽을 살핀다.
그 때, 방 안에서 상을 내어오는 숙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간다.
어찌해야하나 당황스러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이기우가 헛기침을 크게 두어 번 내뿜는다.
부엌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피더니,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숙화.
엿된 태가 남아있는 숙화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이기우.
숙화가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며

숙화 (고개를 조아려 땅을 쳐다보며) 뉘신지요?
이기우 (숙화의 물음에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현암 어른의 거처인가?
숙화 그러하옵니다만……
김성규(E) 밖에 누가 왔는가?
숙화 예, 어르신.

#020. 현암의 초가 안, 낮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김성규. 다소 해쓷은 얼굴이지만, 깔끔히 상투를 틀어올린 모습이 꼳꼳하고 자신감 넘친다.
큰 절을 올리는 이기우.

김성규 그래, 여기서 이렇게 보니 반갑구나.
이기우 다시 뵈게 되어 감계무량하옵니다.
김성규 자네가 제 주목사로 부임하였구먼.
이기우 예.
김성규 이거 원, 반가워해야할 일인지……

쓴웃음을 짓는 두 사람.

이기우 (누추한 방 안을 쓰윽 둘러보고) 그나저나 이곳은 지낼 만하십니까?
김성규 지낼 만하지 않아도 어찌겠나. 목숨이 걸기니 살아야지.
이기우 그런 말씀 마십시오.
김성규 난 자네가 걱정이네. 이 험한 땅으로 밀려 내려왔으니…… 어찌할 생각이냐?
이기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더디 흐르는 시간을 탓하며 견뎌야지요. 그래도 스승님께서 가까이 계시어 의지할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숙화(E) 어르신, 차를 내왔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숙화의 목소리에 자연스레 문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시선.

김성규 들어오너라.

김성규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문을 열리면서, 목쟁반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숙화.

숙화의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이기우.

숙화가 목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방 밖으로 나간다.

붉은 빛이 도는 냉차가 출렁인다.

숙화에게 여전히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기우.

김성규 그래, 한양은 어떠한가?

이기우 (문 쪽을 바라보며) 한양은 여전합니다.

김성규 여전하다면?

이기우 스승님께서 내려가신 이후, 주춧돌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쪽에선 조금이라도 왕권에 어긋나는 세력이 보이면 잘라내려고 혈안입니다. 박원상도 스승님의 복귀를 주창하다가 북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김성규의 물음에 대답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문 쪽을 힐끔거리는 이기우.

김성규 그 일은 전해 들었네.

김성규의 한숨과 함께 잠시 정적.

이기우 (갑작스레)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인지요?

김성규 (무슨 소리인가 싶다가) 누구? ……숙화 말인가?

#021. 선실, 밤

Ins. 선실 앞, 키를 넘기는 큼직한 삼지창을 하나씩 들고 서있는 관군들.

넓고 습한 선실 안, 유구왕세자와 두 신하가 둥근 탁자에 모여 앉아 있다. 왕세자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형세다.

왕세자의 왼쪽에는 배를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무장을 한 채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왕세자를 보좌하는 참모가 앉아있다.

이들은 모두 유구어로 대화를 하며, 자막으로 처리가 된다.

참모 세자전하, 지금 이대로 왜로 가실 순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옵니다.

장군 아니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시어 조공을 바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

옵니다.

왕세자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괴롭게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요.

참모 조선이나 명에게 도움을 청하시지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군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왜에서 저희가 준비한 공물들을 거절할리 없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왜에 붙잡혀 가신 아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세자 (혼잣말하듯 읊조리며) 아버님, 아버님……

장군 분명 이 정도의 공물이라면 전하를 되찾아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은 임진년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어려우므로 앞장서서 나서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까지 왕래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구요.

참모 장군은 어찌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오. ……이미 유구는 기울어졌소.

왕세자 ……그게 무슨 망발인가?

참모 냉철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자전하. 사실상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유구는 왜의 복속국이 될 것이 확실하옵니다. 명에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하를 구출해 내야함을 소인 역시 더할 나위 없이 바라옵니다. 그러나 공물을 전달하여 전하를 구출해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입니까? 유구는 왜에게 복속될 것이고, 아니 어쩌면 유구는 이대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옵니다.

장군 (탁자를 치며 일어선다) 어허,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시는 게요.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대신께서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어찌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불은 보지 못하시는 게요. 세안을 하려면 손부터 닦아야하는 게 아니오. 왜놈들에게 갇은 핏박과 수모를 당하며 인고하고 계실 전하를 구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왕세자 난 장군의 말이 와 닿습니다. 전하의 안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백성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려고 내 이렇게 자리를 비운 것을 불문에 붙인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유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모 (탄식하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옵니다. ……왜로부터 어떠한 전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다니요. 이대로 갔다간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옵니다.

참모의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장군의 표정.

장군 어허, 대신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하오. 이미 다 이야기를 끝내고 승선한 것 아니오.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겁니까?

참모 워낙 급한 사안인지라 장군께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중치 못한 결정 같습니다.

장군 그만 하시오. 이미 우린 바다 한 가운데 있소.

왕세자 그렇다면 내 왜에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준비하겠습니다. 왜에 도착하는 대로 서신을 전한다면 왜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

리진 앞을 것 입니다.

#022. 선실 옆 / #023. 창고, 밤

[#022 선실 옆]

선실 옆으로 난 조그만 창으로 #21의 왕세자와 신하들의 모습을 엿보는 쇠득.
창 옆으로 쌓여있는 나무로 만든 수통더미 뒤에 숨어있다. 행여나 숨소리가 새어 나
갈까봐 손으로 입을 꼭 막고 있다.

[#023 창고]

쇠득이 나간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창고 안을 서성이는 두현.

두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냥 가만히 구겨져 있지,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
고……

[#022 선실 옆]

다시 창고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 쇠득.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려는 마음에 그만 걸음이 엉켜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옆에 세워져 있던 수통 몇 개가 덩달아 쓰러지며 우탕탕 소리를 낸다.

장군(E) 이게 무슨 소린가?

[#023 창고]

창고 안으로 수통을 쓰러지는 우당탕 소리가 밀려 들려온다.
깜짝 놀라 상자 뒤로 숨는 두현.

[#022 선실 옆]

선실 앞을 지키고 있던 관군들이 소리가 난 선실 옆쪽으로 달려온다.
재빨리 일어나 몸을 피하려 하는 쇠득. 하지만 이미 관군들이 들고 있는 삼지창으로
포위된 상태다.
관군들에게 계면쩍은 억지웃음을 보이는 쇠득.
선실에서 달려온 장군이 쇠득을 내려다본다.

[#023 창고]

두현이 창고 밖의 상황에 귀 기울여보지만, 그 이후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상황을 짐작할 수 없자 불안이 엄습하는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두현.
갑작스레 진주가 들어있던 상자를 급히 찾아, 그 안에서 진주를 한 움큼씩 꺼내 저고
리와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기 시작한다.

#024. 폐당 앞, 낮

노역자들이 부산스럽게 폐당의 이 곳 저 곳을 오가며 일한다.
'백곡당'이라고 쓰여 있는 현판의 한쪽이 이미 떨어져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마저 떼
어내려고 세 네 사람이 모여 힘을 쓴다.
이러한 폐당의 모습을 차분히 둘러보는 고범수. 별감이 그의 뒤를 따라 함께 걷는다.

별감 속이 다 후련합니다. 허허, 이제 백곡당을 정리하였으니, 남은 건 자귀당
 뿐이군요.
고범수 네, 그렇습니다.

그 때, 폐당 쪽으로 급히 뛰어오는 사내. 별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고범수
에게 다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한다.
휘둥그레지는 고범수의 눈.

#025. 장터, 낮

사내의 안내에 따라 웅한 장터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고범수. 관군들 열댓 명이 고범
수의 뒤를 따른다.
아이들 몇이 넓은 장터를 제 놀이터인 마냥 휘젓고 뛰어다닌다.
고범수가 장터 한 켠에 앉아 미역을 다듬는 노인에게 다가간다.
노인에게 무언가를 묻는 고범수의 뒷모습.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숲 속을
가리킨다.
숲 속으로 뛰어가는 고범수와 관군들.

#026. 자귀당 근처 숲길, 낮

굿당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이기우 뒷모습. 옥색도포에 갓을 썼다.
시종 하나가 앞서서 그를 안내한다. 부지런한 걸음으로 길을 헤쳐 나가는 시종.
점점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앞을 바라보며 걸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지 멍한 표정의 이기우. #20에서 속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성규의 목소리가 그 위에 흐른다.

김성규(E) 오라비가 몰래 섬을 빠져나갔다고 하네. 대신 저 아이가 부역을 짊어지고
벌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전 목사가 저 아이에게 이 초가의 살림살이
를 맡긴 것이라네.

갓을 쓴 이마 위로 땀방울이 맺혀있는 이기우의 얼굴.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시종과의 거리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기우 이보게.

뒤를 돌아보더니 앞서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시종.

시종 부르셨습니까, 나리.
 이기우 아직 멀었나?
 시종 저 언덕만 넘으면 자귀당이옵니다.
 이기우 그럼 잠시 쉬었다 계속 가세.

주위를 둘러보다가 작은 바위 하나를 발견하곤 그 위에 털썩 앉는 이기우.
 그 때, 이기우의 발밑으로 회색 뱀 한 마리가 지나간다. 가느다랗고 매끈하여 위협적인 느낌을 주진 않는다.
 아무생각 없이 발밑을 내려다보다 크게 놀라 소스라치는 이기우. 놀란 마음에 바위로 올라가 기어가는 뱀을 밟아서 죽이려 한다.
 이기우의 모습을 보고는 부리나케 바위 쪽으로 달려오는 시종.

시종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나리,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기우 (계속 발길질을 해대며) 뭐가 안 된단 말이나. 어서 이것을 치워버려라.
 시종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셔야합니다. 회색뱀은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바위 위로 온전히 올라서는 이기우.
 회색뱀이 스속 소리를 내며 한참동안 바위 주위를 맴돌다가 사라진다.
 뱀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에 떴지 못하는 두 사람.

시종 회색뱀은 자귀라 하여, 영험이 모십니다.
 이기우 ……
 시종 지금 향하시고 계신 자귀당이 바로 자귀의 신을 모시는 곳이옵니다.

바위 위에 주저앉은 채, 아직도 어안이 병병한 이기우의 표정.

#027. 자귀당 마당, 낮

마당 가운데 깔아놓은 명석 위에 앉아 붉은 먹을 갈고 있는 심방. 머리가 큼지막한 붓을 집어 들고 먹을 적시더니, 잘라놓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종이 위에 상형문자를 그려간다.
 마당 주위로 빙 둘러서 심방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표정의 마을 사람들. 그들 중엔 숙화도 있다. 숙화 역시 가지런히 합장하면서 심방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심방이 상 위의 초에 종이를 대어 불을 붙인다. 서서히 타들어가는 종이. 붉은 먹으로 쓰인 글자가 사라지면서 잔해가 하늘 위로 날린다. 종이 여러 장을 하나씩 반복하여 태우는 심방.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시종. 이기우가 그 뒤를 따를 따른다.
 이기우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자연스레 길을 내 주며, 조심스레 뒤로 물러선다.
 사람들의 표정을 둘러보고, 또 심방의 동작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숙화를 발견하는 이기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질끈 묶어 땀아 내린 땀기머리를 한 숙화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한다.

#028. 자귀당 근처 숲길, 낮

고범수가 서둘러 뛰어가고, 관군들이 그의 걸음에 맞춰 뒤를 따른다.

자귀당 근처에 다다랐는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에 멈칫하던 고범수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029. 자귀당 마당, 낮

#027의 시간경과.

자귀당 마당의 모습이 부감으로 펼쳐진다. 둥그렇게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희미하게 심방이 움직이는 형태가 보인다.

뺨이 발그레 달아올라 상기되어 있는 심방의 얼굴. 키를 넘기는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춘다.

두텁고 뭉뚱한 칼을 붓 한 자루 돌리듯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심방의 모습에 넋을 놓고 있는 사람들.

심방은 칼을 하늘 높이 던져 올린 후, 몇 바퀴를 뱅그르르 돌더니 위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칼을 받아내기도 하고, 칼을 자신의 목 주위로 쉬지 않고 휘두르기도 한다.

벋 집으로 만들어놓은 사람형태의 인형을 단번에 가르는 심방. 인형에는 붉은 먹으로 큼지막하게 '倭(왜)'라는 글자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다.

일제히 사람들의 합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방의 곁에 넋이 나간 숙화.

이기우 역시 눈을 깜빡이면 놓쳐버릴 만큼 빠르게 돌고 있는 심방의 모습을 뿔머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 때, 관군을 앞세운 고범수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온다.

관군의 출현에 동요하는 사람들. 관군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 심방의 주위를 둘러싸려고 하지만 심방이 휘두르고 있는 칼 때문인지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심방이 낄새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고 동작을 멈춘다.

고범수 당장 이 자를 연행하라.

고범수의 명이 떨어지자 관군 둘이 달려들어 심방의 팔을 잡는다. 아무런 저항 없이 고범수를 노려보며 끌려가는 심방. 이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 이기우.

#030. 곳당 근처 숲 속, 낮

인적 없는 깊은 숲 속. 관군 몇이 멀찌감치 떨어져 주위를 살핀다.

심방의 이마에 여전히 붉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고범수 자네 짓인가?
 심방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무슨 말씀이신지요.
 고범수 자네가 사람들에게 왜 또 다시 침입한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것 아닌가?

말을 아끼는 심방, 여전히 고범수의 시선을 피한다.

고범수 자네가 말했던 자네 나름대로의 방식이 이런 것이었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나?
 심방 ……꿈을 꾸었습니다.

심방을 노려보던 고범수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진다.

심방 정체모를 배 한척이 항구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고범수 (말을 자르며) 그만하게. 나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게나.
 심방 나리, 제 이야기를……
 고범수 (다시 말을 자르며) 내 마지막으로 충고하겠네. 이 섬을 떠나게. 자네도 잘 알다시피 앞으로 정의현에는 이제 더 이상 사당 따위는 없을 걸세.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일세.
 심방 배 안이 온통 진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범수 ……

심방의 말에 놀라는 고범수, 하지만 동요하지 않는 척 애 쓴다.

고범수 (못 들은 척하며) 자귀당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자네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떠나게, 하루라도 빨리.

#031. 이기우의 처소, 밤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 이기우. 희미한 촛불 빛 아래 얇은 붓을 쥔 이기우의 손놀림이 빠르다.

이기우(E) 부인, 나는 잘 있소. 부인의 염려 덕분에 심신 강건히 파도를 건너왔소. 이곳은 풍문보다는 살만한 곳이오. 내 아직 전부를 둘러보지는 못하였으나……

갑자기 음향이 멈추고, 카메라가 종이를 비추면 이기우가 종이 한 쪽에 속화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자기 자신도 흠칫 놀라는 듯한 이기우의 표정.

#032. 심방의 방, 밤

탁자를 두고 마주 앉아 있는 심방과 덕구.

탁자 위의 촛불 빛에 벽에 걸려 있는 탕화가 희미하게 보여 진다.

덕구 좌수가 그리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방 아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야.

덕구 잘된 일이라니요?

심방 마을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관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이나 칼은 왜군들을 찌르고 벨 수는 있겠지만, 섬을 떠도는 흉흉한 소문과 공포는 해소해줄 수 없네.

덕구 그렇고말고요.

심방 하지만 나는 다르지. 나는 그들을 위해 신에게 기원을 하고 굿을 펼치네. 그들에게 다 잘될 거라는, 아무 탈 없을 거라는 믿음을 안겨주는 것이지.

덕구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왜가 쳐들어온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죄다 사당으로 몰려오는 것을요.

심방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백곡당이 폐쇄되었네. 우리는 궁지에 몰렸어. 이제 더 이상 몰려날 자리가 없어.

덕구 (속삭이듯 조심스레) 그럼 이제 어떻게……?

심방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네. 이 땅의 신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신을 위협하고 몰아내려는 자들이 어떠한 벌을 받아 마땅한지 보여줘야 하네. 직접 보여줘야 해.

덕구 ……

심방의 눈빛에 그만 얼어붙어 할 말을 잃은, 덕구의 상기된 표정.

#033. 선실, 밤

탁자에 앉아 가는 붓으로 화지에 서신을 써내려가는 왕세자.

탁자 옆에 서서 먹을 가는 참모.

왕세자가 벼루 끝에 붓을 다듬고 또 다듬어 글자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다가

왕세자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모 예?

왕세자 진실로 유구가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참모 ……

왕세자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참모 송구하옵니다, 전하.

왕세자 맞아요, 그대 말대로 유구는 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가다간 머지 않아 정권은 모두 왜로 넘어가겠지요. 국정 주도권이 왜에 의해 결정된다면 유구는 더 이상 유구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이미 유구는 기울어졌습니

다.

참모
 왕세자 하지만 말입니다. 나는나라는 사람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람은 그래야합니다. 그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 전하.....
 왕세자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압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이상해도, 잘못돼도,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선택을 바보처럼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의 정적.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참모.
 애써 말을 이르려다가 한 숨 짓고 다시 붓을 쥐는 왕세자.

왕세자 계속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참모 예? 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참모, 먹을 놓고 선실 밖으로 나가다가 왕세자를 돌아보며

참모 제가 끝까지, 끝까지 전하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선실 밖으로 사라지는 참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왕세자.

#034. 선실 앞, 밤

피멍이 든 얼굴로 선상 위에 쓰러져 있는 쇠득.
 관군 몇이 계속 쇠득을 때리고 밟는다. 멀찌감치 떨어져 쇠득을 지켜보고 있는 장군.
 선실에서 걸어 나온 참모가 장군의 곁에 선다.

참모 아직도 진척이 없습니까?
 장군 그냥 어찌다 숨어 들어온 조무래기인 듯한데, 왜 그리 집착하십니까? 그냥 배 밖으로 던져 버리면 될 것ですよ.
 참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수상합니다. 사전의 서신도 없이 왜로 배가 출발한 것도 그렇고, 수상한 자가 배에 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참모의 말에 급격히 동요하는 장군의 표정. 참모를 힐끗 살피는 장군.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의심에 찬 표정을 하고 있는 참모.

참모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겁니다.

손짓으로 지휘관군을 불러 세우는 장군. 지휘관군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한다.

명령을 받는 지휘관군의 표정이 굳어있다. 지휘관군이 장군에게 목례를 하고 쇠득을 패고 있는 관군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인다.

지휘관군의 명을 받자마자 갑작스레 등에 걸고 있는 창을 뽑아드는 관군, 망설이지 않고 쇠득의 가슴을 내리 찌른다.

움찔하며 피를 내뿔더니, 즉사하는 쇠득.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참모. 태연한 장군에게 매달리듯 주저 않는다.

참모 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참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간적으로 칼을 뽑아 드는 장군.

눈 깜짝할 사이에 참모의 목을 베어버린다.

얼굴 가득히 피가 튀자, 순간적으로 질끈 눈을 감는 장군.

#035. 제주목관아 동헌 마루, 낮

큰 상 가득히 가지각색의 음식이 차려져 있다.

잔을 들어 술을 넘기는 이기우.

그 사이, 고범수가 상 위에 보자기로 싼 상자를 올린다. 심방이 고범수에게 전달한 그것이다.

상자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이기우.

이기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범수 명에서 들여온 귀한 자기이옵니다.

그 자리에서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어보는 이기우.

흐릿한 갈색 빛 물감으로 학 두 마리가 그려진 자기가 나온다. 은은하고 단아한 빛을 내는 자기의 모양에 감탄하는 이기우.

이기우 이리 귀한 걸 어찌?

고범수 한양에서 목사 나리께서 새로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특별히 구해 왔습니다.

자기를 들어 꼼꼼하게 살피는 이기우. 마음에 드는지 흠족한 표정이다.

고범수 제주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기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롯이 육지사람 인지라 그저 바다내음이 낯설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고범수 (망설이다가) 부임하시자마자 공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신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이기우 제주는 땅이 불품없어 작물이 희귀한 대신, 신기하고 진귀한 해산물이 있

어 매일같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다만 그 양이 풍족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양의 요구에 부응하기엔 그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고범수 예부터 조공의 양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해왔긴 했습니다만, 어찌겠습니까.

이기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조절이 필요함을 고하는 상서를 올려야겠습니다.

술잔을 주고받는 두 사람.

고범수 그나저나 저를 따로 부르신 연유가……

이기우 며칠 전 정의현에 발걸음 했었습니다.

고범수 아, 그러셨습니까. 왜 진작 서신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기우 이 곳 저 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조용히 둘러보려고 나섰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리고 어찌다보니 자귀당에서의 일도 목격하였고요.

고범수 ……

깜짝 놀라 한참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고범수.

고범수 미처 몰랐습니다. 목사 나라께서 그 자리에 계신 줄 알았다면, 그런 흥한 꼴을 뵈진 않았을 터인데.

이기우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소 강경하시어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했는지요.

고범수 사당 정리는 현암 어르신외 가르침이옵니다. 이제 정의현은 정리가 끝나가오니, 더 이상 사람들이 우매하게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기우 그래야지요.

고범수 아이들은 충효를 배우고, 어른들은 법도를 따릅니다. 더 이상 헛된 잡신이나 숭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이기우 (고개를 끄덕인다) 예.

상 옆에 둔 자기를 다시 한 번 들어 올려 살피며 감탄하다가 뭔가가 생각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기우. 마루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처소로 향한다.

이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고범수.

잠시 후, 처소에서 기다란 자개함을 들고 나온 이기우. #002에서 우의정으로부터 건네받은 조총이다.

이기우가 자개함을 상 위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살피는 고범수의 표정이 의아하다.

이기우 좋은 선물을 주시어 환영해주셨으니 저 역시 답례를 해야지요.

고범수 (가볍게 목례하며) 아닙니다. 좋게 봐주시어 도리어 제가 황송하옵니다.

자개함을 열어 고범수에게 보이는 이기우. 날씬한 조총이 누워있다.

이기우 제주가 험상스럽고 거칠다 하여 지니고 있었던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

은 것 같으니, 이제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고범수 …소인이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기우 좌수께서는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좌수께서 간직하시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036. 창고, 낮

Ins. 창고 문 바로 위에 쓰러져 있는 쇠독의 시체.
 지하 창고와 선상을 연결해놓은 허름한 나무 사다리 위를 차근차근 올라가는 두현.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려한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행여나 소리라도 새어나갈까 싶은 마음에 맘껏 움직이지 못하고, 같은 동작을 소심히 반복하는 두현. 한참 그러다가 기운이 빠졌는지 사다리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037. 사창, 낮

이방의 안내에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이기우.
 나무로 짜인 선반 층층마다 물품이 있다.
 사창의 가장 안쪽에 놓여있는 선반부터 확인해보는 이기우.
 손에 들고 있는 목록첩과 물품을 번갈아 쳐다보며 확인하는 이방.

이방 (선반 위쪽을 가리키며) 계획대로라면 추북이 1000첩, 인북이 300몫이 준비되어야합니다. 추북은 325첩, 인북은 50몫이 부족한 상태이옵니다.
 이기우 얼마쯤이면 계획된 수량을 갖출 수 있겠나?
 이방 보름은 걸리올 듯하옵니다.
 이기우 보름? 월령 진상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 않느냐.
 이방 (고개를 조아리며) 송구하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이기우.
 이방이 그 옆 선반으로 자리를 옮기면 이기우가 선반 위의 물품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이방 (목록첩을 뒤적이며) 이것은 다음 달에 의영고에 진상할 미역이옵니다. 600근이 예정이운데,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은 400근이 채 못 되옵니다.
 이기우 (할 말을 잃은 듯 땀을 흘리다가) 어찌 이러는 가. 부임 후의 첫 번째 공헌인데, 이렇게 되면 내 어찌 후에 임금님을 뵈 수 있겠는가.
 이방

이기우의 한탄에 이방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깨를 한껏 움츠린다.

이방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역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건 어떠

김성규 (거창하게 웃어 보이며) 그래, 지내 보니 어떤가?
 이기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맘이 편치 않은지 숙면을 취하지 못하옵니다.
 김성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럴 테지. 그러한 연유로 그렇게 안색이 밝지 않은 것인가? 어찌 지난번보다 더욱 더 핼썩해진 것 같구나.
 이기우 (한참을 뜸들이며) 실은……

근심이 가득한 이기우의 표정을 조용히 응시하는 김성규.

이기우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성규 뭔가?
 이기우 요즘 공헌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제주는 진귀한 물품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들었건만, 한양에서 요구하는 진상을 충족해나기엔 그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김성규 월령을 말하는 겐가?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월령뿐만이 아닙니다. 월령을 가까스로 채웠다 싶었더니, 보름 후에는 의영고와 해민서에 진상을 해야 합니다.
 김성규 무얼 그리 걱정하는가. 사람들에게 부역을 좀 더 과하면 해결되는 일 아닌가.
 이기우 지금도 할당된 양이 버겁기 때문에 계획된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뤄되옵니다. 여기서 양을 늘린다는 것은 아무런 득이 없을 듯싶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김성규 ……

갑작스레 한숨을 내쉬는 김성규.

김성규 자네는 그새 포기한 것인가?
 이기우 포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성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사당의 귀신이나 숭상하는 미개인들로 가득찬 이 땅에서는 얼마나 더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겐가.
 이기우 임금님께서 명하신 재임기간이……
 김성규 (이기우의 말을 끊으며) 이곳에선 결코 뜻을 펼칠 수 없네. 나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자네는 다시 돌아가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기우 (놀란 듯) 예?
 김성규 뭘 그리 놀라는가? 자네는 내가 이곳으로 쫓겨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생각한 겐가?
 이기우 (고개를 숙이며) 아니옵니다.
 김성규 흐름은 뒤바뀌기 마련이야. 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세.
 이기우 ……
 김성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네, 반드시.

이기우 예, 소인도 그리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성규 그런 사람이 태도가 이 모양인가? 제자리로 돌아 가야하는 자가 어찌 그리 몸을 사리는 겐가?
 이기우 몸을 사린다니요?
 김성규 (혀를 차며) 쫓쫓,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려면 한양에서 요구하는 공헌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군다나 부임 직후의 공헌이니, 그 중요성이야 말로 다할 수 없지.
 이기우 저도 그리하여 근심이옵니다. 어찌 방도가 없을지.
 김성규 방도는 하나뿐이네.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
 이기우 (머뭇거리다가) 하지만……
 김성규 진정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낼 텐가?

#040. 바닷가, 낮

인적이 없는 길을 따라 걷는 이기우. 생각이 복잡한지 땅에 시선을 두었다가, 하늘에 시선을 두었다가, 길옆으로 보이는 바다로 시선을 두었다가 한다.
 그 때, 갑작스레 걸음을 멈춘 이기우가 다시 바다를 응시하면, 누군가가 바위 근처의 바다에서 해엄을치고 있다.
 좀 더 다가가 살펴면, 해엄을 치는 소녀가 보인다.
 한참동안 바다를 응시하는 이기우. 바다 위로 속화의 모습이 드러난다.
 조심스레 바위 아래로 내려가는 이기우. 물거품이 이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속화.
 이기우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수면 위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한참이 지나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속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서는 이기우.
 하지만 잠시 후, 속화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쁜 숨을 내뿜는다.
 가까이에서 이기우가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속화. 고개를 조아리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온다.
 속화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는 이기우를 지나쳐 가려한다. 물에 흠뻑 젖은 옷이 달라붙어 몸의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기우 올해 몇인가?
 속화 (돌아서며) 예?
 이기우 올해 몇이냐고 물었다.
 속화 (고개를 들지 못하며) 열여섯이옵니다.
 이기우 열여섯이라…… 그래, 네가 어르신의 시종을 드느라 고생이 많다.
 속화 아니옵니다.
 이기우 그래, 그만 가보 거라.

머리를 가슴팍에 붙이다시피 숙이고 어려워하던 속화가 빠른 걸음으로 바위 위를 성큼성큼 오르더니 총총히 사라진다.
 그런 속화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이기우.

#041. 창고, 낮

덜컥거리며 창고의 문이 빠르게 흔들린다.

사다리 뒤에서 웅크린 자세로 꾸벅이며 즐고 있는 두현. 창고 문 위로 거친 발걸음 소리가 이어진다.

카메라가 위층으로 이동하면 문 위에 쓰러져 있는 쇠독의 시체가 보인다. 파랗게 질려 있는 얼굴전체가 드러나면서 시체가 점점 뒤로 밀려난다.

시체를 창고 문 위에서 끌어내 옆에다 팽개치는 관군들.

다시 카메라가 아래층으로 이동하면, 위층의 수선스러운 움직임을 눈치 챈 두현이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다, 상자들을 덮어놓은 명석을 발견하고는 끄집어낸다.

사다리 뒤로 달려가 몸을 웅크리고, 명석을 덮는 두현.

그와 동시에 창고 문이 단번에 열리면서, 관군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 창고 안의 상자들을 바빠 옮기는 관군들.

#042. 선상, 낮

잘려진 참모의 목이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선실에 따라 움직이며 굴러다닌다.

커다란 나무 상자를 양쪽에서 한쪽씩 들고 옮기는 관군 둘이 널찍한 연결목을 타고 또 다른 배로 넘어간다.

작은 쾌선에는 이미 같은 상자가 여러 개가 쌓여있고, 열댓 명의 관군들이 둘씩 짝을 지어 밀선의 창고로부터 끊임없이 상자를 나른다.

혼잡한 쾌선의 선상을 비추던 카메라가 연결목을 타고 밀선으로 건너가는 관군대장의 뒤를 따른다. 선실로 향하는 관군대장.

#043. 선실, 낮

기절한 왕세자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는 몸을 줄로 감아 묶는 장군.

선실로 들어오는 관군대장.

관군대장 장군님, 더 이상은 상자를 실을 수 없습니다. 창고에 남아 있는 건 그냥 버리고 가셔야 할 듯합니다.

왕세자의 머리에 동여매고 있던 명주조각을 풀러 왕세자의 입가에 묶는 장군.

장군 알겠다, 서두르자.

관군대장을 따라 선실을 나서려다가 다시 의자에 묶여 있는 왕세자를 돌아보는 장군.

장군 (울조리듯) 저를 원망하십시오. 이미 오래 전부터 유구는…… 끝났습니다.

#044. 이기우의 처소, 밤

탁자 옆에 놓여있는 호롱불이 이기우가 앉아 있는 주위를 밝힌다.
이기우의 어두운 표정 위로 김성규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성규(E) 자네도 알다시피 이 땅은 진상을 위해 존재하네. 자네는 반드시 한양에서
요구하는 월령과 조공을 빠짐없이 챙겨나가야 해. 그게 자네가 살아남는
길이네.

흔들리는 촛불에 따라 이기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굳게 다문 입에서 결
연한 표정이 드러난다.

#045. 고범수의 집 안방, 밤

비단 이불이 들썩인다. 한참 정사를 벌이는 고범수와 그의 부인.
고범수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방안을 가득 메운다. 희열에 찬 환희의 표정보다는 고통
스러운 표정에 가까운 고범수의 얼굴.
그 순간, 땀에 젖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부인의 배게 위에 놓인 부적이 눈에 들
어온다.
기겁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고범수.
그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의 등 뒤를 덮고 있던 비단 이불이 스르르 떨어지면서 헐벗
은 고범수의 뒷모습이 드러난다. 시선을 어찌 뒤야할지를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부인.
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에게 호통을 치는 고범수.

고범수	그게 무엇이요?
부인	(황급히 이불을 찾아 몸을 가리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고범수	(부적을 가리키며) 배게 위에 놓인 그것 말이오!
부인	(머리 뒤에서 부적을 꺼내 보이며) 보시는 대로 부적이옵니다.
고범수	그런 불경스러운 것이 왜 여기 있소?
부인	아들을 낳게 해주는 효험이 있다하여 제가 직접 자귀당 심방에게 청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고범수	자귀당?
부인	예, 자귀당의 심방은 정의현에서 가장 신통한……
고범수	(말을 끊으며 호통을 친다) 어허, 자네는 어찌 그런 신빙성 없는 미신 따 위를 맹신한단 말인가.
부인	(갑작스러운 호통에 놀라며) 서방님.
고범수	어서 그것을 내버리게.
부인	……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하는 고범수의 씩씩한 표정.

#046. 자귀당 마당, 밤

마당의 오른쪽 끝에 심어져 있는 거대한 나무, 굽직한 가지가 네 갈래로 갈라져 있을 정도로 거대하다.

나무 뒤로 돌담이 쌓여 있고, 나무를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제단을 만들어놓았다. 크기가 제 각각인 초 몇 개가 제단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고, 허리가 잘록한 청색자기에 붉은 색 향 대여섯 개가 꽂혀있다.

제단 주위로 향 연기가 자욱하다.

제단 앞에 마련된 돛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있는 만갑. 쉬지 않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한다.

만갑의 뒤로 소리 없이 심방이 다가오면

만갑	왜 하필 그 아이여야 합니까?
심방	신의 결정이야. 자네가 개입할 여지는 없네.
만갑	하지만……
심방	얼마 남지 않았어. 얼른 속화를 준비시키게.
만갑	(그제서야 심방을 돌아보며) 속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방	그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온전히 살 수도 있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어. 모든 것은 자귀신의 뜻에 달려있네.

돛자리에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만갑.

심방 그 아이를 잘 돌보게. 몸이 상해서는 안 되네.

만갑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서는 심방.

#047. 제 주목관아 동헌, 아침

이방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이기우는 허공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방 안을 이리 저리 서성이는 이기우. 이방이 그런 이기우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인다.

이기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날짜를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맴돌던 이기우, 이방에게 다가간다.

이기우	(조심스레) 진정 사람들을 벌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이방	(머뭇거리다가) 이전의 상황을 돌아보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차도가 있을 듯 하옵니다. 그리고 벌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겁을 주자는 것이지요.
이기우	(골똘히 생각에 잠기며) 겁을 준다?
이방	예,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좀 더 힘써주기를 청

하는 것이지요.
 이기우 청하는 것이라……
 이방 말이나 소 따위를 때려 모는 것처럼, 자극을 주자는 것이지요.

#048. 제주목관아 동헌마루, 낮

일렬로 늘어선 사람들 열댓 명이 마당 안에 있다. 연령대가 그야말로 다양해서 이제 갓 열여섯이 넘었을 법한 사내아이부터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구부러진 할아버지까지 있다.

이방이 들고 있던 장부책자와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해본다.
 의자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이기우.

이방 (사람들에게) 자중하거라.

일제히 입을 닫고, 움직임을 멈추는 사람들.

이기우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자네들이 왜 여기 불러왔는지 알겠는가?

서로를 쳐다보며 머리동절 하는 사람들.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자 이방이 췌, 하고 경고를 하며 사람들을 집중시킨다. 사람들의 동요가 다시 수그러든다.

이기우 사흘의 시간을 주겠으니, 각자 배당된 수량에 맞게 물품을 진상하도록 하라.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다가) 만약 시일을 어길 시에는 장을 칠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여라.

목사의 말에 다시 동요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때,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청년 하나가 걸어 나온다.

청년 목사나리, 그건 무리이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만합니다. 죽어라 일만했는데도 그 양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이기우 뭐라?

청년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을 주신다고 해도 그만큼을 진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청년의 말에 동요하던 사람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높인다. 너무 힘들다는 토로와 하소연들이다.

이방이 다시 나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자 하지만 소용없다.

할 말을 잃은 듯 얼이 빠진 듯한 이기우 표정.

그 때, 이기우의 머릿속에 김성규의 충고가 스쳐지나간다.

Ins. 현암의 초가.

#039에서 이기우와 마주보고 앉아 충고를 건네던 김성규의 모습.

김성규 방도는 하나뿐이네. 쥐어짜는 수 밖에 없어. 진정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낼
 텐가?

다시 동헌마루로 돌아오면, 굳게 입을 다물고 청년을 응시하는 이기우.
기세 등등하게 서 있는 청년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한탄을 늘어놓고 있다.
이방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이기우의 눈치만 보고 서 있다.

이기우 (갑작스레 호통을 치며) 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
 냐?

일순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동헌마당.
이기우의 언행에 놀란 듯한 표정의 이방이 고개 숙인다.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청년은 움찔하지 않고 꼳꼳
하게 서 있다.

이기우 저 자의 불기를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주위에 서 있던 관군 몇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든
다. 청년을 잡아끄는 관군들.
청년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노인 하나가 오열을 하며 관군들을 붙잡는다.
사람들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당황하며 붙잡힌 청년을 손 놓고 바라볼 뿐이다.

#049. 제주목관아 앞, 낮

관군들에게 끌려 나오는 청년. 기절을 했는지 눈이 감긴 채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관군이 청년을 목관아 문 앞에 던져놓는다. 관군들 뒤로 뒤쫓아 뛰어오는 노인.
청년의 엉덩이를 덮고 있는 바지가 피로 물들고, 땀과 물로 뒤덮인 얼굴이 파랗다.

#050. 창고, 밤

상자로 가득 채워져 있던 창고 안이 웅하다. 크고 작은 상자 몇 개가 창고 안에 불규
칙적으로 나뒹굴고 있다.
명석을 조심스레 걸고 고개를 내미는 두현. 창고 안을 살펴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
고는 명석 밖으로 빠져나온다.
 텅텅 비어버린 창고 안의 모습이 어리둥절하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다시 한 번 창고 문을 힘껏 밀어보는 이기우. 스프르 가볍게
열리는 문.
창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눈 앞에 새파랗게 질려있는 쇠독의 시체가 보인다.

쇠득의 시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두현. 믿기지 않는지 쇠득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시체를 들여다본다.
핏기 없이 차갑게 식어있는 쇠득의 얼굴.

#051. 선실, 밤

의자에 앉혀진 채, 묶여 있는 왕세자. 끔끔거리며 소리를 쳐 보지만 천 쪼가리가 입가 주위를 압박하고 있다.
그 때, 선실 안으로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는 두현. 관군들이 선박 안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얼이 빠진 표정이다.
묶여 있는 왕세자를 발견하곤 다시 한 번 그 자리에 얼어붙는 두현.
왕세자 역시 악을 쓰다가 눈앞의 두현의 모습에 놀라 그대로 멈춘다.
잠시 정적. 불이 번쩍이며 선박 주위가 환해진다. 선박 위의 시체들이 보였다 사라진다.
천둥소리가 그르렁거리며 이어지는데, 두현과 왕세자 모두 놀라 움찔하는 기색이다.
두현이 머뭇거리다가 왕세자가 묶여 있는 쪽으로 다가간다.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한 왕세자. 뭐라 말하는 듯싶지만 역시 웅얼거리는 소리일 뿐이다.
왕세자의 먹살을 잡아끄는 두현.

두현 (두려움에 온 몸이 바들바들 떨며) 이, 이게 뭐, 뭐야? 씨팔, 왜 다들 뒤통져 있어?

힘이 빠졌는지 먹살을 놓고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두현, 씩씩대며 가쁜 숨을 내쉰다.
그제서야 왕세자의 입가를 압박하고 있는 명주천이 눈에 들어오는 두현, 조심스럽게 의자 뒤로 다가간다.
두현이 가까이 다가가자 더욱더 요동치는 왕세자.
두현이 명주 천을 풀기 시작한다.
입 안 가득 고여 있는 침을 뱉어내며 헉헉거리는 왕세자.

두현 빨리 말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다 뒤통져 있어?
왕세자 (유구어) 이 줄, 줄부터 우선 ……
두현 뭐?
왕세자 (유구어) 풀어줘, 어서 줄을 풀어 달라고.
두현 뭐라고?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이 새끼가.

머리를 쥐어 뜯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선실 안을 빠르게 서성대는 두현.
묶여있는 몸을 요통치며 소리치는 왕세자.

왕세자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어서 풀어라.

유구어가 아닌 우리말로 호통을 치는 왕세자.
깜짝 놀라 멍한 표정의 두현이 의자에 묶여 있는 왕세자의 몸을 내려다본다.

왕세자 (흐느끼듯) 어서 풀어라.

왕세자를 옥죄고 있는 줄을 풀기 시작하는 두현.
줄이 점점 느슨해지자 서둘러 몸을 일으키면서 자리를 박차고 달려 나가는 왕세자.
왕세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자가 세계 뒤로 넘어가면서 넘어지는 두현.

#052. 선상, 밤

선실 밖으로 뛰어 나오는 왕세자. 이따금씩 치는 번개 불빛에 주위가 환해졌다 어두워졌다가 반복된다.
눈앞에 싸늘하게 식어 쓰러져 있는 관군들의 모습. 선박 위로 거친 마찰음을 내며 쏟아지는 빗줄기.
두현이 왕세자의 뒤를 따라온다.
울분이 터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왕세자의 발 아래로, 참모의 머리가 굴러온다. 잠시 정적.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왕세자의 비명소리.
순간, 힘겹게 서 있던 왕세자가 눈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진다.
달려가 왕세자를 부축해 올리는 두현.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퍼붓기 시작한다.
파도가 세지면서 배가 좌우로 극심히 흔들린다.
왕세자를 끌고 선실로 들어가려는 두현. 그러나 배가 흔들리는 탓에 앞으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다.
겨우 중심을 잡으며 선실로 조금씩 다가가는 두현.

#053. 심방의 방, 새벽

Ins. 바다 위, 떠 있는 배를 향해 빗발치듯 날아드는 화살들.
꿈에 놀라서 갑작스레 눈을 치켜뜨며 일어서는 심방. 심방이 누워있는 자리 주위가 땀으로 젖어있다.

#054. 고범수의 집 안방, 낮

기다란 상 가득 차려져 있는 각양각색의 술안주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술이 얼큰하게 취한 현감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 옆으로 좌수 고범수와 별감이 앉아있다.
별감의 얼굴 역시 별경게 달아올라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다.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고범수의 굳은 얼굴. 마치 고범수만 다른 시간, 다른 공간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의 분위기와는 이질적이다.

별감 (웃음을 겨우 멈추고선) 그래서 지금 좌수어른께서는 그것이 모두 심방의 부적 때문이란 말씀입니까?

고범수 (얼버무리며) 꼭 그렇다기 보단……

별감 이제 보니 좌수어른께선 참으로 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부인의 태기가 어찌 부적 때문이겠습니까, 모두 좌수어른의 능력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감어른?

현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현감 어른신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시는 분이 부적이라니요.

연신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는 고범수. 별감과 현감의 놀림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지 표정이 어둡다.

고범수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인지 별감과 현감은 끊임없이 놀려댄다.

별감 어허, 결국 좌수 어른께서 이 섬의 토박이이신 게 이렇게 드러나옵니다.

현감 맞아요. 아무리 배우고 노력을 하신다 하여도 결국은 제주 사람이신 게지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한바탕 웃어 제치는 두 사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부글부글 끓는 고범수의 표정. 암전히 술잔을 내려놓는다.

고범수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사당과 굿을 정리하는 지금의 작업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현감 (깔깔거리며 웃던 표정이 급변하며) 성급이라니요?

고범수 불과 한 해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정의현에는 고작 두 개의 신당만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지정 되어야 할, 뿌리 뽑아야 할 것임에는 틀림 없지만 이렇게 정신 없이 밀어붙이다가는 사람들의 반발심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별감 오늘, 좌수 어른께서 정말 이상하십니다. 사당정리를 가장 먼저 자청하신 건 좌수어른이 아니십니까?

고범수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갑자기 겁이 납니다.

현감 겁이라니요? 무엇을 겁낸단 말입니까?

고범수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무섭습니다. 사당 정리를 시작한 이후로 맘 편히 잠자리에 든 적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 때,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범수와 현감, 별감 모두 문 쪽으로 시선이 집중된다.

하인(E) 나리, 심방이 찾아왔습니다.

심방이라는 말에 바로 기척을 하지 못하고 현감과 별감의 눈치를 살피는 고범수.
범수를 탐탁지 않은 듯 쳐다보는 현감과 별감.

고범수 돌아가라 일러라.
하인(E) 소인이 그렇게 일렀사오나, 급히 알려야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범수 내 분명 돌아가라 일렀다.
하인(E) 꿈 얘기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거라고 하면서…….
고범수 (멈칫하다가 호통을 치며) 어허! 물러거라.

#055. 정의현 주막, 낮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먹고 마신다. 그 때, 주막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내, 덕구다.

부엌에서 상을 들고 나오던 주모가 덕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한다.
하지만 주모의 인사가 무색해질 만큼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덕구의 표정.
덕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주막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둘 썩 주시하기 시작한다.

주모 뭘 일이야?

입술을 파르르 떨며 쉽사리 이야길 하지 못하는 덕구.

사내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왜 그래?

걱정스러운 마음에 덕구가 서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덕구 심, 심방님께서 그러시는데…… 곧 왜, 왜선이 나타날 거래.

덕구의 말에 들고 있던 상을 놓치는 주모.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주막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056. 제주성 내 장터, 낮

흥겹게 재주넘는 장사꾼들을 둘러싼 사람들. 웃고 떠들며 왁자지껄한 분위기다.
이기우가 이방을 비롯한 관아 사람 몇을 이끌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장터 이 곳 저 곳을 둘러보는 이기우. 이방이 그의 옆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해준다.

이기우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힐끔힐끔 올려다보는 표정에 불만이 가득 배어 있다.

이기우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고는 당황스럽다.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이어지자 장터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이기우.

이기우가 돌아서서 멀어지자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들.

남자1(E) 그럼 그렇지, 육지 놈들이 다 똑같지. 이번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남자2(E)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들 같으니라고. 배먹을 간이나 있는 벼룩이냐고, 우리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보는 이기우.

깜짝 놀라 쥐죽은 듯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누가 내뱉은 말인지 알 수 없다.

#057. 선실, 밤

선실 안에 마련된 간이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왕세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끊임없이 뒤척인다.

그러다 눈을 뜨면, 낯선 공간을 단번에 인식하지 못하곤 이리저리 주위를 살핀다. 탁자 위에 얹드려 졸고 있는 두현이 눈에 들어온다.

이불을 걷고 침상에서 일어나려는 왕세자. 하지만 기운이 없어 그런지 그만 발을 헛딛고는 바닥에 넘어진다.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는 두현.

Cut To 왕세자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는 두현. 반쯤 열려 있는 선실 문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보인다.

파도가 잠잠해졌는지, 선박도 그리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왕세자 (유구어) 너는 누구냐?

왕세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당황스러운 두현의 표정.

두현 (중얼거리듯) 뭐요?

두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왕세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왕세자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이 배를 탔느냐?

두현

왕세자 놀랄 것 없다. 나는 유구의 왕세자이다. 조선은 우리의 우호국이다.

말을 잊지 못하고 어찌 처신해야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는 두현.

왕세자 내 어떻게 이 배에 올랐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두현 이 배가 제주로 향한다기에.....

왕세자 제주? 조선의 섬을 말하는 것이냐?

두현 (고개를 끄덕이다가) 포구에서 사람들이 제주로 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왕세자 이 배는 제주가 아니라 왜로 행하는 것이었다.

#058. 마장, 아침

Ins. 안개가 내려앉은 언덕 위의 마장 전경.
진한 갈색 빛을 띄는 조랑말 하나가 쓰러져 죽어있다.
조랑말 곁을 지키고 있던 단사관이 고범수를 보고 고개를 숙인다. 단사관 곁으로 마장의 일꾼 둘이 서 있다.

고범수 단사관, 이게 무슨 일인가?
단사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면목 없습니다.
고범수 (호통을 치며) 어찌된 일이야?

단사관이 옆에 서 있는 일꾼 하나를 힐끗 쳐다보자, 그 자가 긴장한 듯 쭈뼛거리며 고범수 쪽으로 몇 걸음 걸어 나온다.

일꾼1 그러니까 어제 밤까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고범수 그런데?
일꾼1 제가 분명 자기 전에 이 녀석을 살펴봤는데, 멀쩡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
고범수 그게 무슨 소린가. 멀쩡하던 말이 왜 갑자기 죽어?
일꾼1 그건 저도 도저히 알 길이 ……
고범수 이 마장의 말들이 궁으로 진상된다는 건 나보다 자네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고범수의 귀에 누군가의 종얼거림이 들린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단사관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일꾼 하나가 울먹이고 있다.

일꾼2 벌 받은 거야. 자귀신께서 노하셨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 벌 받은 거야. 우리 벌 받은 거야.

#059. 현암의 초가 앞, 낮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김성규의 괴성. 떨리는 숙화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나온다.
초가 가까이로 걸어오던 이기우가 멈칫하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기우의 손에 보자기로 싸인 자기가 들려있다. 고범수에게 건네받은 그것이다.

숙화(E) (울먹이며) 어, 어르신, 제발, 제발 이러지 ……
김성규(E) (말을 자르며) 어허, 가만히 있거라.

한참동안 문 앞에 서 있는 이기우. 문고리를 잡아 다니려고 손을 가져가보지만 결국 망설이다가 거둔다.

자기를 문 앞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리는 이기우. 보자기가 흐트러지면서 열린 갈색 빛으로 채색되어 있는 자기의 목 부분이 드러난다.

#060. 창고, 낮

창고 문이 열리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왕세자. 그 뒤를 따르는 두현.

창고 바닥에 물이 차 있다. 겨우 상자 몇 개가 너부러져 있는 모습이 기가 찬 왕세자. 신이 젖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나무 상자를 뒤적인다.

상자 하나는 뚜껑이 깨진 채 엎어져 있고, 그 옆으로 알이 굵은 진주가 반쯤 쏟아져 있다. 또 다른 상자 하나에는 동그란 조개가 가득 차있다.

왕세자 (음조리듯) 유구로 돌아가자.

두현 예?

왕세자 유구로 돌아가야 한다. 이대로 왜로 갈 수는 없어. 우리가 준비한 완전한 공물이어야만 아버님을 모셔올 수 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두현 ……거기로 또 돌아가겠다고요? 나는 싫습니다.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왕세자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해.

두현 심한 폭풍이 일었습니다. 살아 있는 게 다행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떠 있는 건지나 아십니까?

왕세자 ……

두현 제길, 이게 도대체 날벼락인지…… 왜 사람들이 죄다 뒹져 있는 겁니까? 말해봐요.

말을 잊지 못하는 왕세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왕세자 그럼 유구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두현 유구는커녕, 배가 어디에 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때, 뭔가가 생각났는지 급히 사다리를 뛰어오르며 창고 밖으로 나가는 왕세자. 사다리 앞에 서 있던 두현이 왕세자를 급히 몸을 피해 물러선다.

#061. 선실, 낮

선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왕세자.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왕세자를 따라 들어오는 두현.

왕세자가 침상 밑을 뒤지기 시작한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 두 마리가 새겨진 보석함이 있다.

침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상자를 꺼내 오는 왕세자. 뚜껑을 열자, 새가 앉아 있던 그

위치에 불그스름하고 큼직한 돌이 놓여있다.
왕세자가 마음이 좋는지 크게 한숨을 내쉬곤, 상자의 뚜껑을 닫는다.
두현이 왕세자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두현 그게 뭐니까?
왕세자 (두현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에 놀랐는지 흠칫하며) 아, 아무것도 아니다.

왕세자가 상자를 뒤로 감추자, 더욱더 궁금해지는 두현.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관심을 끈다.

두현 어쩔 겁니까, 이제.
왕세자 (계속 등 뒤에 감춘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무얼 말이나?
두현 우리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다에 위에 떠있을 순 없잖아요.
왕세자 유구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두현 나,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돌아갈 수 없다고 했지, 내가 언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까. 어디로든지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이렇게 바다 위에서 죽고 싶어요?

#062. 제주목관아 동헌, 낮

이기우가 탁자 앞에 앉아 허공에 시선을 둔 채 멍하니 앉아 있다.
그 때, 문 밖에서 이방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상념에 넋이 나가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이기우.

이방(E) 나리, 이방이옵니다.
이기우 (자세를 올바르게 고쳐 앉으며) 들어오너라.

스르륵 조심스레 문이 열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
Cut To 이기우의 측면 쪽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는 이방.

이기우 그래서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말이나?
이방 사흘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여전히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기우 네 그렇게까지 본보기를 보여줬는데도 어찌……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이방.
문 밖에서 심방의 도착을 알리는 관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관인(E) 나리, 정의현 자귀당 심방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063. 현암의 초가 부엌, 낮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숨 죽인 채,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숙화. 헝클어진 머리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의 숙화의 모습이다.

풀어진 헤쳐진 저고리를 여미며 드러난 어깨를 감추는데,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낀다.

#064. 자귀당, 낮

단상 위를 청소하고 있는 덕구. 향을 피우고, 솥농을 끓여내고, 불상의 먼지를 닦아낸다.

그 때, 자귀당 안으로 들어 닥치는 고범수. 고범수가 덕구의 먹살을 잡는다.

고범수 심방은 어디 있느냐?
덕구 (고개를 내뺌) 나리, 왜 이러십니까?
고범수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덕구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고범수가 먹살을 놓자 주저앉아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덕구.

고범수 이번에도 네 놈들이지? 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고범수를 힐끗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조아리는 덕구.

고범수 마을 전체에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 혼란이 가득해. 사내들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다 포구에서 진을 치고 있고, 아낙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는 집안에 들어앉았네. 지금이라도 당장 피신해야한다며 짐을 싸는 이들도 있어. 자네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는 알기는 하는 건가?
덕구 왜 나리께서는 심방님을 믿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만약 심방님의 예언이 실현된다면요? 심방님께서 분명히 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간 정의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켜보셨으면서도 두렵지 않으신 겁니까?
고범수 마장의 말을 해친 것도 네 짓인 게지?
덕구 사당을 폐하는 것이 어떠한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범수
마장은 시작에 불과하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범수 뭐라? 네 이 놈! (밖을 향해) 여봐라!

고범수의 부름에 마당에서 뛰어 들어오는 관군 둘.

고범수 이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덕구를 양쪽에서 잡아다가 억지로 자귀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관군들.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려는 덕구가 관군들에 완력에 몸부림친다.

덕구 (고범수를 향해 소리치며) 이미 신은 노하셨고, 이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가 쳐들어옵니다! 심방님이 노하셨으니, 자귀신이 벌하실 것입니다!

자귀당 밖으로 끌려 나가는 덕구의 모습을 지켜보는 고범수.
덕구를 끌고 가는 관군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자귀당 안을 둘러본다. 벽에는 온갖 부적들이 즐비하게 붙어있고, 크기가 다양한 칼과 창이 걸려 있다. 뱀의 형상을 한 신이 그려진 탕화가 압도적이다.
두려움이 밀려드는지 고범수의 경직된 표정이 보인다. 뒷걸음치며 서둘러 자귀당을 벗어나는 고범수.

#065. 제주목관아 동헌, 낮

심방으로부터 등을 돌려 앞다시피 한 이기우의 탐탁지 않은 표정.
이기우의 뒤로 자신의 붉은 치마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기우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심방이 앉아있다.

이기우 (호통을 치며) 그 말을 나더러 믿으란 말인가?
심방 예, 그렇사옵니다.
이기우 긴히 전해야 할 급한 말이라기에 들었건만, 어찌 그리 해괴망측한 연사를 늘어놓는단 말인가? (심방 쪽을 바라보며) 대뜸 앞뒤도 없이 주인도 없는 배가 보물을 싣고 나타날 것이라니! 네가 감히 나를 농락하려는 게냐?
심방 소인이 어찌 나리를 농락하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은 거두어주시옵소서.
이기우 내 비록 전하의 덕화가 미치지 않아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들끓는 땅에 머물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미개한 감언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네. 나는 이미 자네가 미개한 풍속과 음사를 숭상하며, 무고한 처녀들을 잡아다가 뱀굴에 바치는 악행을 행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네.
심방 소인은 나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단지 거래를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이기우 거래?
심방 공헌 진상으로 어려움이 크시다 들었습니다.
이기우 네가 그걸 어찌……
심방 소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상이 진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라면 분명 공헌 진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헌 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강경하던 이기우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듯하면

이기우 진주로 채워져 있다?

심방 예, 선상 가득히 진주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기우 (망설이다가) 만약 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심방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결연한 심방의 태도에 흠칫 놀라는 이기우.

이기우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심방 자귀당을 폐하지 말아주소서.
 이기우
 심방 저는 단지 돌이키고 싶은 것뿐입니다. 망가진 것들을 치유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싶을 뿐입니다.
 이기우 이는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현암 어른께 말씀을 올리고,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에 네게 기별을 보내겠다.
 심방 예, 나리.
 이기우 그런데 네 분명 선박의 주인이 없다 하였느니라. 어찌 확신할 수 있는가?
 심방 (머뭇거리다) 선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어있었습니다.

#066. 선상, 낮

말없이 일어서 시체들을 하나씩 질질 끌고서는 창고 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두현.
 시체를 쳐다보기가 꺼려지는지 고개를 돌리고서 움직인다.
 그런 두현의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는 왕세자.

왕세자 미안하네.
 두현 (시체를 끌며) 뭐가요?

애써 고개를 돌려 시선을 바다에 두는 왕세자.
 시퍼런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하얀 거품을 뿜어낸다.

왕세자 자네 친구.
 두현 (시체를 내려놓으며).....
 왕세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일세. 애초에 이렇게 배를 띄우는 게 아니었어.
 두현 네 잘못입니다. 맞아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거였어요. 개를 꼬드겨서 섬을 빠져나오자고 한 것도 나였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를 타자고 한 것도 나였거든요.
 왕세자
 두현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아니, 그 놈보다도 내가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집으로요.
 왕세자 왜 섬에서 도망친 것인가?
 두현 그 땐, 그곳이 내 집이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저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왕세자

시체를 끌고 다시 창고 쪽으로 움직이려는 두현.

왕세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물었었지? 빌어먹을,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두현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왕세자 뭐?

두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시체를 내려다보며) 이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차
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는 걸요.

잠깐의 정적. 시체의 악취 때문인지 미간을 찌푸리는 두현.

왕세자 (바다를 둘러보며) 우린, 어디에 가고 있는 거지?

두현 죽었든 살았든 이 배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걸 아는 놈은 하나도 없
을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걸요.

선상 바닥에 주저앉으며 더 없이 지친 기색을 보이는 왕세자.

두현 (왕세자를 의식하여) 물결이 사나운 걸 보니, 육지가 여기서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을 완전히 잃었지만, 이렇게 가다보면 어디든 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왕세자 하지만?

두현 하늘을 봐요.

두현의 말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왕세자. 짙은 먹구름이 위협적으로 몰려온다.

다시 시체를 끌어다가 창고로 향하는 두현.

두현을 가만히 지켜보던 왕세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당장이라도 토악질을 할 것 같
은 힘겨운 표정으로 시체 하나를 끌고 두현을 따라간다.

#067. 만갑의 초가, 밤

캄캄한 방 안. 이리 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숙화.

가만히 누워 있지만, 만갑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다.

만갑 (한숨을 내쉬며) 숙화야.

숙화 왜 여태 안 주무셔요.

만갑 너 말이다. 아니다, 아니야.

숙화 무슨 말씀인데 그리 똘을 들이셔요.

만갑 너도 알고 있겠지만, 매 해마다 자귀당 뱀굴에 처녀를 바치지 않느냐.

만갑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레 구역질이 나는 숙화. 깜짝 놀라 일어나 앉는다.

저녁 먹은 것이 잘못되었나 싶어 가슴을 두어 번 내리쳐 본다.

만갑 왜 그러냐? 먹은 게 탈난 게야?

괜찮아 진땀하여 다시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다시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숙화. 그만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만다.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웅웅거리는 구역질 소리가 이어진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어병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는 만갑. 숙화의 구역질 소리가 끊이질 않자 만갑이 숙화를 따라 방 밖으로 나선다.

#068. 심방의 방, 밤

닫고 있던 명두를 손에서 놓치는 심방. 명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질 듯한 파열음을 낸다.

담담하던 무표정이 갑작스레 급변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 심방. 거친 숨을 몰아쉰다.

#069. 만갑의 초가 마당, 밤

마당 한 구석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하는 숙화.

방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는 만갑이 숙화 뒤로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다.

만갑 (허를 차며) 쫓쫓, 대체 뭘 주워 먹었길래…….

헛구역질을 하던 숙화가 만갑의 말에 조용해진다. 그제서야 태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숙화.

만갑이 숙화의 등짝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린다.

#070. 선상, 밤

선박의 양쪽에서 각각 기다란 노를 잡고 있는 두현과 왕세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거세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심하게 뒤틀리듯 흔들리면서 급기야 물이 배 안으로 넘친다.

왕세자 (소리치며) 이대로…….괜찮은 건가?

흠뻑 젖은 두현을 힐끗 보는 왕세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지 두현이 손짓으로 선실을 가리킨다.

두 사람 모두 비틀거리며 선실로 급히 뛰어 들어간다.

#071. 선실, 밤

심하게 요동치는 선실 안. 벽에 기대어 주저 앉아있는 두현과 왕세자.
배가 서서히 기울면서 침상이 비틀어지고, 서랍장이 열린다.
탁자가 눈을 감고 떨고 있는 왕세자 쪽으로 쓰러진다.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곤 움찔하는 왕세자.
다시 배가 반대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침상이 서서히 반대편으로 쓰러져 내린다.
하지만 그 때, 침상 아래에 숨겨둔 보석함이 흘러내리고, 자신을 향해 기울어지는 침상을 향해 빠르게 기어가기 시작하는 왕세자.
당장이라도 피하지 않으면 침상에 깔릴 위험에 처 있는 왕세자를 향해 두현이 급히 따라간다.

두현 (악을 쓰며) 조심해!

다리를 잡아당기는 두현을 뿌리치며 쓰러지는 침상 쪽으로 향하는 왕세자.
배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두현이 반대편으로 밀려나고, 침상 아래 숨겨두었던 보석함이 흘러내려와 왕세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면서 선실 끝쪽으로 날아간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왕세자.
썰러 내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벽을 잡고 있는 두현.
이미 선실 안은 발목까지 물이 찼다.

#072. 포구, 낮

사내들이 변변치 않은 농기구들을 무기로 삼아 들고선 포구에 모여 있다.
바람이 심한 탓에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사내들 몇은 비틀거리고, 몇은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사내 1 (졸고 있는 사내를 발로 툭툭차며)이봐, 여기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한숨을 내쉬며) 나 참, 왜선은 무슨 코빼기로 안 보이는데.
사내 2 기다려 봐, 심방님의 예언이라잖아.
사내 1 예언은 무슨…… 밤을 꼴딱 썼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사내 2 아니, 이 사람이! 안 보이면 천만 다행인 것이지! 그럼 자네는 왜선이 나
 타났으면 좋겠나?

그 때, 무장한 관군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 포구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관군들의 기세에 눈치를 보며 슬슬 밀려나는 마을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군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는다.

#073. 봉수대, 저녁

망지기 둘이 봉수대 앞에 서 있고, 감관 하나가 시커먼 연기를 뿜어대는 횃불을 들고 망지기들을 지나 조악하게 짜인 문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봉수대.

#074. 만갑의 초가 마당, 저녁

만갑이 부엌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나오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심방이 만갑의 초가 툇담 안으로 들어온다.
만갑을 보자마자 사나운 기세로 다가오는 심방.

만갑 왜선이 들이닥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 사람은 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데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심방 (대뜸) 그 아이 집에 있나?

만갑 (심방의 기세에 놀라며) 예?

심방 그 아이 있느냐고?

만갑 지금쯤이면 현암 어르신 저녁상을 보고……

심방 (말을 끊으며) 다 틀렸어, 다 틀려버렸네.

만갑이 들고 있던 대야가 흔들리면서 물이 넘친다.
만갑이 마루에 대야를 내려놓는다.

만갑 무슨 말씀이신지? (다급해진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심방 (만갑의 뺨을 내리치며) 둔해빠진 놈 같으니라고.

어찌해야할지를 모르는 만갑, 얼어맞은 뺨을 어루만질 뿐이다.

심방 그 아인 이제 안 된다. 자귀신께 바칠 수 없어.

만갑 ……

얼이 빠져 얼어버린 듯 서 있는 만갑.

심방 신에게 올릴 수 없네. 남의 손을 타버렸어.

심방의 말에 식겁을 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만갑. 심방의 매서운 눈초리를 애써 피한다.

만갑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방 자귀신의 재물이 망쳐진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이제 처녀가 아니란 말 일세.

만갑
심방 내 분명 자네에게 그 아이를 잘 지켜야한다고 당부하였건만.....,

분노에 휩싸여 온 몸이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만갑.

만갑 도대체 누, 누가 그런 짓을?
심방 (만갑을 쏘아보며) 누구겠는가?

#075. 고범수의 방, 낮

탁자 위에 이기우로 부터 건네받은, 행용총이 담긴 자개함이 놓여있고, 조심스레 함을 열어 총을 꺼내드는 고범수.
번질한 몸통을 손가락 끝으로 스윽 훑쳐보기도 하고, 화문 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고범수의 담담한 듯 결연한 표정과 총을 세밀하게 만지는 손놀림에서 긴장감이 맴돌면 밖에서 벌어지는 실랑이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사내(E) 나리, 안되옵니다. 아무로 들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별감(E) 어허!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끝까지 방문 앞으로 막아서는 사내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별감.
뒷짐을 지고 별감의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현감.
엮어진 사내가 어찌해야할바를 모르고 고범수를 힐끔 바라보면

고범수 됐다, 나가보거라.

몸을 추스리고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는 사내.
사내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문을 닫는 별감.
탄환을 장착하고, 화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고범수.

현감 좌수가 직접 관군들에게 집결을 명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고범수 예, 그렇습니다.
현감 왜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무장을 명령하셨습니까?
고범수 예.

말을 잊지 못하고 등 돌아 서는 현감.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서 있는 현감과 별감을 올려다보는 고범수, 잡고 있던 총을 내려놓으며

고범수 일단 앉으시지요.

별감 마을 전체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범수 예.

자리에 앉지 않고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서 있는 현감과 별감.

별감 어찌자고 그런 명을 내리신 겁니까? 왜가 들이닥친다니요.
고범수 제 말씀을 일단 들어보시지요. 자귀당의 심방이.....
별감 (말을 끊으며) 허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기껏 보잘 것 없는 무당의 망
 발입니까?
고범수
현감 (호통을 치며) 좌수는 어명을 받아 나랏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범수 사실이면 어찌합니까? 심방의 예언이 사실이라면요. 실제로 왜가 쳐들어온
 다면요.미친 소리 같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구요. 하지만..... 사실이라면요, 정말이라면요,
 그렇다면..... 손 놓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별감 미개하고 저속하다하여 사당을 정리하자고 앞장섰던 사람은 좌수어른이십
 니다.
고범수 그렇다면 저 역시 미개하고 저속한가봅니다. 태생이 이곳인지라 어쩔
 수가 없나봅니다. 심방의 한마디, 한마디를 넘겨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방
 이.....두렵습니다. 신이 무섭습니다.

#076. 포구, 저녁

묶여있는 선박 몇 대가 출렁이는 바다에 따라 움직인다.
바다가 보이는 돌담을 따라 일렬로 줄지어 뛰어가는 관군들이 포구로 들어온다.
경직된 자세로 포구에 늘어선 관군들의 시선을 따라가면, 갈매기 한 마리조차 눈
에 띄지 않은 바다의 모습이 보인다.
해를 완전히 삼킨 어둑어둑한 수평선.

#077. 제주목관아 동헌, 밤

초초한 기색으로 방 안 이곳저곳을 서성대는 이기우.
그의 모습 위로 #065의 심방의 목소리가 들린다.

심방(E) 소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상이 진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라면 분명 공헌 진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이 분할되면서 왼편에는 방 안에서 초초해하는 이기우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오
른편에는 몽타주가 펼쳐진다.
이기우가 한양에서 떠나올 때의 가족들이 눈물짓던 모습과 김성규가 이대로 제주에

감혀버릴 것이냐며 충고하던 모습이 차례로 이어진다.
분할된 화면이 사라지면서 서둘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이기우의 모습이 화면 전체를 채운다.

#078. 현암의 초가, 밤

탁자 위에 책을 펼쳐놓고 연신 하품을 해대는 김성규.
상 뒤의 자개장 위에 놓여있는 자기가 흔들리는 촛불에 따라 선명히 보였다 희미해졌다 한다.
달힌 문이 달그락 거릴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분다.
책을 덮고 탁자 촛불을 불어 끄는 김성규.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방안.

#079. 장터, 밤

아이를 들쳐 업고 양손 가득 보따리 짐을 싣 여인들이 부산이 움직이고, 노인들은 부산히 그 뒤를 따라나선다.
동네를 뛰어다니던 꼬마아이들의 청얼대는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시장의 한쪽에서는 관군들의 안내에 따라 집결한 남자들이 창 한 자루씩을 받아들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건장한 여자들도 있다.
술 취한 노인 하나가 '왜가 침입했다'를 주정처럼 끊임없이 외치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다나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사내에 부딪혀 바닥에 꼬꾸라진다.
노인을 쓰러뜨리고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는 사내, 바로 만갑이다.
발 디딜 틈 없이 술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 바닥을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지나는데, 숨이 거칠다. 모퉁이를 돌다가 한 사내가 횃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강제로 빼앗는 만갑.
만갑의 형세에 사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들고 있던 횃불을 내어준다.
다시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만갑.

#080. 선실, 밤

모든 것이 부수어지고 쓰러져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선실 안.
각각 선실의 양 끝 쪽에 쓰러져 있는 왕세자와 두현. 이상하리만큼 주위가 고요하다.
먼저 눈을 뜨는 왕세자. 뒤집혀진 침상에 갇혀 쉬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왕세자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는데, 반대편에 쓰러져 있는 두현이 보인다.

왕세자 이보게, 이보게. (상처가 고통스러운지 신음하다가) 살아있나? 폭풍이 멈췄네.

왕세자의 소리에 깨어나는 두현.

#081. 포구, 밤

어둑해진 포구가 관군들이 들고 서 있는 햇불 때문에 환하다.
기약 없이 이어지는 기다림에 관군들 모두 지치고 지루해 보이는 표정이다.
열은 흩어져 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병사도 있다.
그 때, 누군가의 단말마와 같은 외침이 포구 전체를 울린다.

병사1(E) 나타났다.

한 병사의 외침에 놀라져 있던 관군들이 재빨리 정열하기 시작한다.
관군들이 일제히 하나같이 캄캄한 바다를 응시한다.
하지만 배가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미동도 않고 한참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눈이 휘둥그레지는 지휘관.

지휘관 (목청이 찢어질듯) 왜선이다!

포구 근처의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밀선.

#082. 현암의 초가 근처 길, 밤

치마가 휘날릴 정도로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는 숙화. 멀리 보이는 할구가 환하지만, 바람 때문에 불빛이 뭉개져보인다.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숙화의 얼굴 표정이 서글프고 비장하다.
김성규의 초가가 보인다.

#083. 읍성문 앞 길, 밤

말을 타고 급히 달리는 이기우. 그의 길을 저지하려는 듯이 마주 불어오는 바람을 맞선다.
그의 뒤로 점점 멀어지는 제주읍성문.

#084. 포구, 밤 / #085. 선상, 밤

[#084 포구]
관군들이 신속하고 정돈된 움직임으로 일제히 활을 든다.

[#085 선상]
선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두현.
바다 건너에 환한 불빛이 아른거린다. 육지다.
믿을 수 없는지 눈을 떼지 못하는데, 자세히 보니 익숙한 풍경이다.

[#084 포구]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관군들.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숨죽인 관군들의 모습.

[#085 선상]

그 때, 선실 밖으로 휘청거리며 나오는 왕세자.

두현 (왕세자를 향해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육지입니다.

두현의 말에 왕세자가 선박 끝으로 달려가 햇불이 가득한 포구를 바라본다.
점점 포구 쪽으로 흘러가는 밀선.

[#084 포구]

순간의 침묵을 가르는 지휘관의 소리.

지휘관 발사!

지휘관의 명령 소리와 함께 발사되는 화살들이 컴컴한 바다를 향해 날아간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밀선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들.

[#085 선상]

뭔가 석연치 않은 듯 포구를 보는 왕세자의 굳은 얼굴.

두현 (희열에 차 흐느끼며) 저 땅은…… 제 주입니다.

왕세자 (유구어) 그런데……저 불빛은 무엇이냐?

왕세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세자가 서 있는 뱃머리 바로 앞에 내리 쏘이는 화살.

포구 쪽에서 밀선을 향해 화살이 비처럼 날아들기 시작한다.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두현과 왕세자.

안도의 순간도 잠시, 두 사람은 화살을 피해 다시 선실로 뛰어 들어간다.

순식간에 화살 여러 대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굉음을 내며 박힌다.

#086. 현암의 초가, 밤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숙화가 들어온다.

숙화가 배를 감싸며 잠들어 있는 김성규를 내려다본다. 비참한 듯 분으로 가득 찬 눈이다.

잠시 정적. 방 안을 스윽 둘러보다가 자개장 위의 자기에 눈이 가는 숙화. 다가가서

자기를 집어 든다.

#059에서 이기우가 초가 앞에 내려놓고 간 그것이다.

바람 때문에 걸어놓지 않은 방문이 덜컥이며 열린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뜨는 김성규.

그 순간, 속화가 김성규의 머리를 자기로 내려친다.

비명이 들릴 새도 없이 산산조각 나는 자기와 함께 피가 튄다.

속화의 얼굴과 흰 저고리에 피가 얼룩진다. 속화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한다.

자기의 파편이 김성규의 머리에 박혀 있다. 머리 뒤로 피가 새어나와 방바닥에 퍼져 나간다.

김성규로부터 뒷걸음치다 탁자에 걸려 주저앉은 속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는지 멍하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진다.

#087. 선실 안, 밤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선실 안 이 곳 저 곳을 뒤적이며, 보석함을 찾는 왕세자.

부쉘진 탁자 밑 깊숙이 놓여있는 보석함. 마음만 급해서 허둥대고 있는 왕세자.

창을 뚫고 선실 안으로 꽃히는 화살. 왕세자가 소리에 놀라 동작을 멈추고 웅크린다.

두현 역시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숨어 있다. 잠시 정적.

빛발치던 화살이 멈췄는지 선실 밖이 잠잠하다.

두현 빌어먹을, 이게 대체 무슨…… 이대로 있다간 이 자리에서 뉘지겠어.

웅크린 채 정황을 살피던 두현이 선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왕세자가 일어서는 두현의 움직임에 놀란다.

왕세자 (유구어) 어딜 가려는 겐가?

두현 잠깐만 기다려요.

왕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실 밖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어 나가는 두현. 혼자 남겨진 왕세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다시 정신없이 보석함을 찾다가 부수어진 서랍장 파편과 함께 깨진 벼루와 붓 몇 자루를 발견하는 왕세자.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한참을 망설이던 왕세자가 서랍장 쪽으로 기어가서 알뜰한 붓 하나를 쥔다.

#033에서 서신을 쓸 때 사용하였던 벼루와 붓이다.

#088. 현암의 초가 앞, 밤

손과 옷가지에 피를 묻힌 채, 도망치는 속화.

돌담을 돌아 뛰어나오는데, 저 멀리서 말이 뛰어온다.

말이 가까이 다가오자 길가로 몸을 붙인 채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속화.

말 위의 이기우가 멀찌감치 보이는 김성규의 초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누군가의 움직임에 멈춘다.

피범벅인 얼굴과 옷으로 힘겹게 뛰어가는 속화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소스라치는 이기우.

속화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피하려다가 힐끔 쳐다본 말 위에 이기우가 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더더욱 서둘러 도망친다.

이기우는 말을 멈추고 도망치는 속화의 뒷모습을 살핀다. 점점 멀리 달아나는 속화의 걸음걸이가 다급하다.

말 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피범벅인 속화의 모습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급히 말에서 내려 김성규의 초가로 뛰어가는 이기우.

#089. 선상 / 창고, 밤

영금영금 기어 선실 밖으로 나오는 두현. 그의 뒷모습을 바짝 쫓는 카메라.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포구의 모습이 보인다.

어렴풋이 관군들이 늘어서 있고, 햇불로 인해 포구가 지나치리만큼 환하다.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두현.

자신이 옮겨 놓은 관군들의 시체 몇 구가 쌓여있다.

사다리 뒤로 가서 자신이 숨어 있었던 명석을 걸어내면, 가지런히 놓여있는 쇠독의 시체.

순간 풍겨 나오는 악취에 머리가 핑 도는 두현. 한쪽 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쇠독의 시체를 들쳐 업고는 사다리를 오른다.

두현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내가 말했었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090. 현암의 초가, 밤

초가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이기우.

바닥에 흥건한 피가 보이고, 김성규의 머리가 짓눌린 모습이 보인다.

이기우가 김성규의 초가 앞에 놓고 갔던 바로 그 자기가 처참하게 부수어져 있다.

큰 조각 몇 개가 김성규의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굳어버리는 이기우.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만다. 어찌해야할지 몰라 두리번거릴 뿐, 발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있다.

그렇게 한참을 우왕좌왕하다 초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이기우.

#091. 장터, 밤

혼비백산의 장터를 둘러보는 고범수. 어깨에 이기우로부터 건네받은 행동총이 메었다.

#079에서 만갑에 부딪혀 쓰러졌던 미친 노인이 주저앉은 상태로 여전히 '왜가 침입했다'고 외치고 있고, 고범수가 그 앞을 지난다.

관군들에게 건네받은 창을 들고 있는 사내들과 아낙들이 모여 전의를 다진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장터를 뛰어다니고, 아이들의 엄마가 울부짖으며 아이들을 잡으려 다닌다.
 이러한 장터의 광경을 살피는 고범수의 모습 위로 심방(#030)과 덕구(#064)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린다.

심방(E) 꿈을 꾸었습니다.
 덕구(E) 이 땅이 흔들립니다!
 심방(E) 정체모를 배 한척이 항구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
 덕구(E) 왜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심방(E) 나리, 제 이야기를 ……
 덕구(E) 자귀신이 벌하실 것입니다!
 심방(E) 배 안이 온통 진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는 고범수.
 심방의 꿈 이야기가 그제서야 귀에 들어왔는지 놀라움에 표정이 멍해지더니, 허겁지겁 장터를 빠져나간다.

#092. 선실, 밤

탁자를 덮고 있던 구겨진 천에다가 무언가를 정신없이 쓰고 있는 왕세자.
 마른 벼루 위에 붓끝을 아무리 다듬어 보아도 갈라져있다. 그래서인지 천 위에 휘갈겨 쓰여지는 글자들이 거칠고 날카롭다.
 쇠득을 힘겹게 업고 선실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두현.
 쇠득의 옷가지에 묻은 피가 검게 굳어 말라버렸다.
 그 때, 다시 포구 쪽에서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한다.
 선박에 화살이 꽂히는 둔탁한 소리가 또 다시 이어진다.
 반사적으로 몸을 바닥에 웅크리는 두 사람.
 화살 하나가 왕세자의 바로 앞, 글을 써놓은 천의 한 가운데에 내리 꽂히자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왕세자.
 또 다른 화살 하나가 두현의 등에 업혀있는 쇠득의 시체에 꽂힌다.
 다시 화살세례가 멈춘 듯, 밖이 고요해진다. 잠시 정적.
 왕세자를 힐끔 바라보더니, 선실 밖으로 기어나가는 두현. 두현의 손짓에 어안이 병병한 왕세자가 그를 따라 나선다.

#093. 현암의 초가 앞, 밤

달려 나온 이기우, 돌담 앞에 내버려둔 말을 찾아보지만, 이미 달아났는지 말이 보이지 않는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이기우. 돌담을 따라 한참을 뛰고 또 뛰면, 저 멀리 어렴풋이 속화의 뒷모습이 보인다.

#094. 자귀당 근처 숲, 밤

다급한 걸음으로 숲길을 헤쳐 나가는 장옷을 입은 심방의 뒷모습.
한참동안 숲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바다가 흰히 내다보이는 벼랑 끝에 다다른다.
포구에서 근접한 바다에 떠 있는 밀선이 보인다.
밀선을 내려다보는 심방의 굳은 표정.
흘러내리는 땀에도 찡그림 하나 없이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얼굴이다.

#095. 포구 앞 바다, 밤

화살받이가 되어버린 밀선을 뒤로 하고 포구를 향해 헤엄치는 두 사람.
두현은 여전히 쇠독의 시체를 업고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머리가 수면 위로 들어날듯 말듯 능숙한 솜씨로 물을 가르다.
포구로부터 다시 빗발치며 날아드는 화살들.
선박에 꽂히는 화살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고개를 숨기고 바다 속으로 잠수한다.
하지만 몇 발의 화살들은 바다 속으로 위협적으로 내리 꽂힌다.
등에 업은 시체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않은 두현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다.
그 순간, 두현의 머리를 관통하는 화살 하나.

#096. 포구 근처, 밤

돌담과 돌담사이로 만들어진 골목을 뛰어가는 고범수. 험뎅거리지만 쉬지 않는다.
어깨에 맨 행용총이 고범수의 움직임과 함께 흔들린다.
이리 꺾고 저리 꺾으며 한참동안 달리면 골목이 끝나면서 포구가 눈앞에 펼쳐진다.
일제히 늘어선 관군들이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한다.
골목 끝에서 멈춰 선 고범수, 심방의 이야기대로 실제로 바다에 밀선이 떠 있는 장면
에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다.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밀선을 향해 화살들이 빗발치며 날아간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고범수.

#097. 포구 앞 바다, 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두현의 시체. 그리고 그 옆의 쇠독의 시체.
두현의 머리에 화살이 관통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헤엄쳐가는 왕세자.
관군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포구 앞을 피해 옆쪽으로 방향을 틀어 헤엄쳐가기 시작한
다.

#098. 만갑의 초가, 밤

연신 울조리듯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초가로 뛰어 들어오는 숙화. 얼굴에 땀 피가 흘러내리는 땀과 뒤섞여 흘러내린다.
여전히 숙화의 모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다.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숙화.

#099. 현암의 초가 마당, 밤

햇불을 들고 바다가 보이는 돌담길을 썩썩대며 걸어가는 만갑의 뒷모습.
김성규의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초가로 향하는 만갑.
빠른 걸음으로 초가를 한 바퀴 빙 돌면서 들고 있던 햇불을 지붕에 가져다댄다.
지붕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
분을 참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구석구석에 불을 지피는 만갑.
초가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다.

Ins. 초가 안, 깨어진 자기 파편이 머리에 박힌 채 죽어있는 김성규가 쓰러져 있는 모습.

지붕이 타오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마당 한 복판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며 초가를 응시하는 만갑.

만갑 (절규하며) 나와.

초가 안의 김성규가 뛰어나오길 기다리는 만갑.
그러나 초가가 활활 타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김성규는 나오지 않는다.

#100. 만갑의 초가, 밤

방문이 열려젖히며 초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기우. 방 한쪽 구석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숙화가 눈에 들어온다.
이기우의 출현에 기겁을 하며 놀라서 일어서는 숙화. 도망치려 뒤로 돌아보지만 등 뒤에는 벽이 놓여있을 뿐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숙화.
이기우가 숙화를 진정시키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이기우가 점점 더 다가올 수록 격렬해지는 숙화의 떨림.

이기우 너를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너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숙화

이기우의 말이 들리기는 하는 건지 참다못한 숙화가 이기우가 엉겨주춤한 사이를 틈타 그를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쳐 나간다.
숙화의 기세에 엉덩방아를 찧고 바닥에 미끄러지는 이기우, 아픈 줄도 모르고 숙화를

따라 나간다.

#101. 포구 근처, 밤

흙뻘 젖은 채,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바위로 기어 올라오는 왕세자. 자신이 헤엄쳐온 바다를 돌아보면, 포구 쪽으로 더욱더 가까이 떠밀려온 밀선이 보인다.

소매로 젖은 눈가를 스윽 훑치고 다시 돌아서서, 바위 사이사이를 조심스레 건너 오른다.

포구를 등진 채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 왕세자.

그 때, 마을 쪽에서 포구를 향해 고슴을 철썩이며 달려오던 고범수가 마을 쪽으로 향하는 왕세자와 마주친다.

왕세자를 발견하고는 경직된 고범수. 왕세자의 기이한 옷차림과 물골의 훑어본다.

그 자리에 얼어버린 것은 왕세자 역시 마찬가지다.

고범수 저, 저, 저 놈 잡아라!

고범수의 등장엔 놀란 왕세자가 할 수 없이 포구 쪽으로 도망친다.

요란하게 소리를 치며 왕세자를 뒤쫓는 고범수.

#102. 마을 길, 밤

멀리 도망치고 있는 숙화의 뒷모습이 보인다.

이기우가 애써 쫓아가보지만 이미 지친 터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숙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달려가는 이기우.

넋이 나간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숙화.

어느 새, 마을 중심에 위치한 숲 쪽으로 뛰어 들어간다.

#103. 또 다른 마을 길, 밤

인적 없는 마을길을 정신없이 헤매는 왕세자의 숨 가쁜 뒷모습. 쉬지 않고 뛰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두리번거린다.

근처의 초가들은 모두 문이 굳게 닫힌 채, 인적이 없다.

길의 끝에서 웅성이며 발 빠르게 따라오는 관군들.

그들을 앞에 앞 장 서서 달려오는 고범수. 어깨에 맨 행용총이 화면에 가득 찬다.

고범수의 시점에서 저 멀리 길을 꺾는 왕세자의 뒷모습이 얼핏 스쳐지나간다.

고범수 게 셋거라!

왕세자가 사라진 돌담의 모퉁이를 돌면 저 멀리 숲이 보인다.

숲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왕세자의 뒷모습.

지체하지 않고 왕세자의 뒤를 쫓는 고범수와 관군들.

#104. 몽타쥬, 밤

- 자귀당, 눈을 질끈 감은 채 절실히 불공을 드리는 심방의 모습.
심방의 앞에 회색 뱀을 두르고 있는 부처가 그려지진 탕화가 크게 걸려 있다.
심방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 거센 바람 때문에 더더욱 활활 타오르는 김성규의 초가.
초가의 돌담 바로 앞에 주저앉은 채, 타오르는 초가를 몽롱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만갑.
- 속화의 모가 홀로 누워 있는 만갑의 초가.
이불 위로 가지런히 포개어진 속화 모의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여진다.
- 포구 근해에 둥둥 떠 있는 두현과 쇠득의 시체.
시체 주변으로 화살들이 즐비하다.

#105. 숲, 밤

숲 속을 헤매며 도망치는 왕세자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찬다. 힘에 겨워 잔뜩 일그러져 있다.
한참을 뛰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 뒤로 숨는다.
터질 듯한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주저앉는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왕세자. 뿅뿅이 들어찬 나무들 사이로 달이 유난히도 밝게 빛난다.
달을 비추던 카메라가 서서히 내려가면 달을 유심히 올려다보고 있는 고범수가 보인다.
그가 고개를 돌리면, 햇불을 든 관군들이 이 곳 저 곳을 수색하며 숲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 나가는 고범수. 깊숙한 숲 가운데로 이동한다.

#106. 반대편 숲, 밤 (#1의 반복)

급히 속화를 쫓아 뛰던 이기우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기우로부터 점점 더 멀리 도망치는 속화,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미로 같은 숲이 이어진다.
거칠던 속화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늘어진 나뭇가지들이 나타나고, 수풀들이 나타난다.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서면 속화가 주춤주춤 앞으로 나아간다.

#107. 숲, 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흩어지는 관군들. 일제히 햇불들이 흩어지면서 숲 안이 다시 어둑해진다.

고범수가 관군 둘을 이끌고 숲 속 여기저기를 살핀다.
 그 때, 숲 속 저편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수풀이 부스럭거리는 들려온다.
 순간, 고범수의 표정이 굳으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자, 고범수가 뒤따라오는 관군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어깨에 매고 있던 둔 총을 꺼내드는 고범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수풀 안을 향해 총을 겨눈다.
 고범수가 점화약을 화문에 넣으면, 햇 불을 들고 있던 관군이 화문에 불을 붙인다.
 수풀이 누군가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린다.
 화문의 덮개를 덮는 고범수. 탕, 하는 소리가 귀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숲 속 안에 퍼진다.
 동시에 누군가가 소리 없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온다.
 반동으로 인해 뒤로 살짝 밀려나는 고범수.
 총소리가 메아리처럼 숲속을 맴돈다.

#108. 몽타쥬, 밤

- 커다란 나무 뒤에서 죽은 듯이 숨어 있던 왕세자가 총소리에 놀라는 모습.
- 자귀당 안에서 총소리에 놀라는 심방의 모습.
- 서로 눈치를 보더니 수풀 안쪽으로 허둥지둥 뛰어가는 관군들과 그들의 뒤를 따르는 고범수.
- 총소리가 난 쪽으로 절룩거리며 서둘러 걸어가는 이기우.

#109. 숲, 밤

수풀을 헤집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고범수.
 수풀 안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데, 관군들이 점점 다가가면 피로 물든 속화의 모습이 보인다.
 이미 의식이 없는 속화.
 속화의 시체를 어찌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서 있는 관군들.
 넋이 나간 고범수의 당황스러운 표정.

#110. 밀선, 새벽

Ins.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밀선.
 밀선을 수색하는 관군들. 몇몇은 밀선 여기저기에 꽃힌 화살들을 뽑고 있고, 몇몇은 엉망진창으로 뒤집혀 있는 선실 안을 뒤진다.
 선실 안을 들여다보던 지휘관이 지하창고 쪽으로 향하고, 그의 뒤를 쫓아가는 카메라.
 문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레 내려가는 지휘관.
 순간적으로 풍겨 나오는 악취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만다.

창고 안에 널린 시체들.

그 때, 선실 쪽에서 들려오는 어느 관군의 목소리.

관군(E) 나리, 여기 뭔가를 찾았습니다.

관군의 소리에 다시 창고를 나와 선실로 되돌아가는 지휘관.

선실로 들어서면 관군 하나가 들고 있는 자그마한 상자가 눈에 띈다.

관군으로부터 상자를 건네받는 지휘관.

겉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뚜껑을 조심히 열면 불그스름한 빛을 뿜는 주먹크기만한 매끈한 돌이 나타난다.

그 때, 선실을 수색하던 또 다른 관군 하나가 바닥에 구겨져 있던 천을 가져온다.

천을 건네받는 지휘관, 이게 무언가 싶어 이리저리 살피다 펴보니 천 한 쪽에 글이 휘갈겨 쓰여 있다.

#111. 숲, 새벽

어둠이 걷히고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새벽녘의 숲.

깊숙한 숲 속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왕세자.

소리 없이 모멸하는 왕세자의 모습이 한참동안 보인다. F.O

#112. 주막, 낮

인적이 없는 한 낮의 주막. #55의 그 주막이다.

관군 둘이 주막 안으로 멍석으로 뒤덮인 커다란 수레를 끌고 들어온다. 평상 옆에 수레를 세워두는 관군들.

관군들의 등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레 쪽으로 다가오는 주모.

주모가 수레의 멍석을 들춰보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어 있는 새파란 두현의 시체가 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모멸을 하는 주모.

#113. 만갑의 초가, 낮

만갑의 초가 마당 앞으로 나이 든 관군 하나가 멍석으로 덮인 수레를 끌고 들어온다.

초가 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이는 만갑의 처.

자리에 누워있지만, 덮여있는 이불이 조금씩 바스락 거린다.

이불 위로 올라와 있는 손가락이 눈에 뵈는 만큼 움직여진다.

관군(E) 만갑이, 자네 집에 없는가? 아무도 없는 거야? 자네 아들이 돌아왔어.

초가 안을 울리는 관군의 소리에 만갑 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뺨을 타

고 비스듬히 흐르기 시작한다. F.O

#114. 에필로그/ 선박 창고, 낮

Ins. 포구에 가득한 짐꾼들, 포구의 전경.
왜소한 짐꾼 하나가 짐을 들고 선박 안의 창고로 향한다. 짐꾼의 뒤를 따르는 카메라.
창고에 짐을 쌓고 돌아서는 짐꾼, 헐썩해진 왕세자다.
다른 짐꾼들의 눈치를 보며, 창고 안을 매섭게 살핀다.
Cut To 짐이 가득한 창고 안에 숨죽인 채 숨어 있는 왕세자.
화면 서서히 암전되면서 자막이 뜬다.

(자막) 그 해, 유구국은 왜의 침략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권이 왜로 넘어갔다. 실질적인 국정 주도권이 왜에 의해 결정되면서 유구는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잃게 되었다. 왕세자의 다음은 알 수 없다.

다시 화면이 밝아지면
포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배.

#115. 이기우의 처소, 낮

상 위의 보석함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는 이방.
보석함을 열면, 불그스름하면서 광이 나는 돌이 있다. 돌을 꺼내 이리저리 살피는 이방. 그런 이방의 행동엔 관심이 없는 듯 상에 달린 서랍을 열어 접혀 있는 종이를 펼치는 이기우.
#031에서 그랬던 속화의 얼굴이 보인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착잡하고 쓸쓸한 이기우의 표정.

이방 나리, 이것은 주천석(酒泉石)인 듯하옵니다.
이기우 (종이를 접어 넣으며) 주천석?
이방 네, 맑은 물에 담그면 술로 변한다는 신비한 돌입니다.

이방이 건네는 돌을 받아드는 이기우. 신기한 듯 들여다보다가 보석함에 넣는다.

이방 이제 명주천을 살펴 보시지요.

보석함 옆에 놓인 명주천을 집어 드는 이기우.
천을 펼치면 한쪽 끝에 빼곡하게 글이 적혀있다.
결눈질로 천을 내려다보는 이방.
심드렁하게 글을 읽어 내려가던 이기우의 얼굴이 급격히 싸늘하게 굳는다.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천이 비춰진다.

왕세자의 거친 글씨가 화면을 채운다.

堯語難明桀服身
臨刑何暇訴蒼旻
三良臨穴人誰贖
二子乘舟賊不仁
骨暴沙場縋有草
魂歸故國弔無親
竹西樓下滔滔水
遺恨分明咽萬春

(자막) 堯 임금 말도 桀 같은 자를 밝히기 어렵고, 형에 임하여 하늘에 호소할 틈이 있겠는가? 三良의 묘혈에 누가 贖을 받치리, 二子の 배에 적은 어질지 못하네. 뼈는 모래밭에 드러내고 풀로 엉켜 있고, 혼은 옛 고을에 돌아가도 조상할 이 없네. 竹西樓 아래에 도도히 흐르는 물, 한은 분명히 만년 봄에도 오열하리라.

#116. 고범수의 방, 낮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고범수의 모습. 눈 주위가 움푹 팬 채로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몸을 계속해서 떨고 있다.

공포로 가득한 고범수의 눈과 표정을 비추던 카메라가 그의 등 뒤로 넘어가면, 그의 바로 뒤에 숲 속에서 총을 맞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의 속화의 시체가 누워있다.

고범수 (정신없이 중얼거리며) 저리 가, 저리 가

화면 서서히 암전 되면서 자막이 뜬다.

(자막) 고범수는 1년여를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을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가 죄책감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소리도 들렸고, 숲을 지나다가 회색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리도 들렸으며, 심방의 저주로 죽었다는 소리도 들렸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117. 자귀신 동굴, 밤

동굴 앞 제단에 엮드린 채 묶여 있는 소녀.

제단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칼춤을 추는 심방.

제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 절도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흔들리는 심방의 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들고 있는 칼로 제단 위의 소녀를 묶고 있는 줄을 끊는 심방.

소녀가 일어서면서 울먹이는 얼굴이 보이는데, 속화가 아닌 다른 처녀이다.

심방의 안내에 따라 동굴 안으로 걸음을 서서히 옮기는 소녀. 심방에 의해 억지로 끌

려가듯 뒤를 끊임없이 돌아본다.
동굴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심방.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소녀.
화면 서서히 암전 되면 자막이 뜬다.

(자막) 자귀당은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심방은 속화를 대신해 동네의 다른 처녀아이를 뱀굴에 바쳤고, 해마다 관행은 되풀이 되었다. 마을은 조용해졌지만 이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유구인이 원수를 갚기 위해 쳐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귀당으로 몰려왔고, 심방은 굿을 했다.

#118. 바닷가, 낮

속화의 시체를 앉고 바위에 걸터앉아 있는 만갑.
거센 바닷바람에 속화의 긴 치맛자락과 머리카락이 휘날린다.
만갑이 굳은 표정으로 바다를 응시하다가 속화를 안고 일어서 바다 쪽으로 걸어간다.
속화를 조심스럽게 물속에 내려놓는 만갑.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던 속화의 시체가 서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하얀 거품이 일면서 속화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한참동안 속화가 가라앉은 바다의 표면이 비춰진다.
그러다 갑자기 다시 수면 위로 헤엄을 쳐서 떠오르는 속화.
#40에서 잠수를 했다가 물 위로 올라오던 모습과 연결이 된다.
속화가 숨을 가쁘게 몰아 내쉬며 바위 쪽으로 헤엄쳐온다.
만갑이 앉았던 바위 위에 걸터앉아 속화를 응시하는 이기우.
#40에서와는 달리 속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그의 얼굴에 씩씩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있다.

끝